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8월
석사학위논문

徐令壽閣과 商景蘭의 한시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단

徐令壽閣과 商景蘭의 한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chinese poetry of
Seo-yeongsuhap and Sang-gyeongnan

2014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단

徐令壽閣과 商景蘭의 한시 비교 연구

지도교수 : 이 상 원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단

장단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김 수 중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김 미 령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이 상 기 (인)

2014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동기와 목적	1
2. 연구사 검토 및 서술방향	4
II. 생애 및 작품 개관	8
1. 서영수합의 생애와 작품 개관	8
2. 상경란의 생애와 작품 개관	12
III. 徐令壽閣과 商景蘭의 시작 활동과 시의 특징	18
1. 시작 활동의 특징	18
1) 서영수합 : 남편의 권유와 개인적 활동	18
2) 상경란 : 가족 여성시사의 조직과 집단적 활동	24
2. 이별에 대한 감정	30
1) 서영수합 : 자식에 대한 그리움	31
2) 상경란 : 남편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	38
3. 여성시인으로서의 자의식	45
1) 서영수합 : 윤리와 욕망의 조화 추구	45
2) 상경란 : 독립적 자아 추구	52
IV. 徐令壽閣과 商景蘭 시의 문학사적 의의	56

V. 결 론	59
참고문헌	62

표 목 차

<표 1> 조선후기 여성 작가의 계층별 통계	9
<표 2> 중국 역대 여성 작가의 시대별 통계	12
<표 3> 서영수합이 차운한 중국 시	50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chinese poetry of Seo-yeongsuhap and Sang-gyeongnan

Zhang Dan

Supervisor: Lee. Sang Won Ph.D.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oetry writing of Seo-yeongsuhap(1753-1823)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Sang-gyeongnan(1605~1676?) of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oetry.

First, Seo-yeongsuhap and Sang-gyeongnan were outstanding female poets from noble families at a time when feminine literature prospered. Both of them began to write poetry after they were married. Seo-yeongsuhap began to write poetry with her husband's recommendation as a poetic partner. She did not record her own poetry herself because she was under the ethical discipline of her husband's family. However, Sang-gyeongnan continued to pursue freedom with her husband's support after she was married.

Second, both wrote lots of poems on separation which was hardly seen in female poets from noble families. However, their poetry on separation did not focus on love of a beloved or missing one's lover that had left, unlike other female poets from other classes. Seo-yeongsuhap sang how she felt about separation from children while

Sang-gyeongnan sang about separation from husband and friends due to patriotic duties.

Third, both of them emphasized the self-consciousness of women from noble families. Seo-yeongsuhap tried to pursue harmony between ethics and desire. She was willing to stick to Confucian ideology following the discipline of her family although she had a conflict in pursuing her desire through poetry writing. Sang-gyeongnan was brought up in a family where the freedom for women to start something was allowed. So, after she was married, she actively pursued literary creation to establish a family society of poets. After her husband died for his country, she had a crisis in her writing, but she overcame her anxiety of being alone in a period of turbulence through independent self-consciousness and kept writing poetry to realize her own value.

I. 서론

1. 연구동기와 목적

예로부터 한국과 중국은 모두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어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같은 漢字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공통점은 두 나라의 상층지배계급인 사대부남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일 뿐 여성들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았다. 그것은 가부장제라는 봉건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처럼 문학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시인들은 이런 사회적인 束縛에도 불구하고, 여류시의 문화적 체계를 형성해왔다. 조선후기나 명청시대에 이르면 여성의 문학 활동을 금지하는 사회 상황이 여러 방면의 추동 아래서 상대적으로 느슨해졌고, 여성시인들도 전에 비해 활동이 빈번해졌으며, 이에 따라 작가수도 늘어나는 추세였다.

조선후기 사회는 전반적으로 산업이 융성하고 문학이 발달됨에 따라 광범한 계층의 문학 활동이 활발해졌다. 더욱이 英·正祖시대에 이르러 문학이 최고봉에 다다랐으며 여성문학에 대해서도 이에 따라 큰 자극을 받아 전에 비해 좀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여성시인은 이 시기에 와서 대량으로 등장하였고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한편 명말 청초의 여성문학에 관해서는 부녀문헌학자(婦女文獻學家)인 胡文楷가 편저한 『역대부녀저작고(歷代婦女著作考)』¹⁾에 상세하게 밝혀져 있다. 명말 청초에 이르러 여성시인이나 그녀들이 창작한 작품의 수량이 전에 비해 대폭 늘어나는 추세들을 보여주는 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명말 청초는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기회가 많아졌다. 또 인쇄술의 발전으로 편집된 여성작품이 대량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여성작가들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다. 여성시인의 작품선집(選集)과 전집(全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그 양이 삼천 여종에 상당하여 여성작가군(女性作家群)이 형성되었으며 각 신분계층의 여성문학 상황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士大夫家 여성시인들은 다양한 작품경향과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

1) 胡文楷, 『歷代婦女著作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pp.1205~1207.

져 있다.

조선후기와 명말 청초의 대표적인 사대부가 여성시인으로 徐令壽閣과 商景蘭을 들 수 있다. 서영수합은 조선후기의 유교적 윤리규범을 지닌 사대부가 여성시인으로 총 115편²⁾의 작품이 『영수합고(令壽閣稿)』에 수록되었는데, 이 작품들은 오늘날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문학을 이해함에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상경란도 중국 전통적 유교문화사상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대부가 여성시인으로 자신의 시집 『商夫人錦囊集』에 총 67수³⁾의 시작품을 수록하여, 기씨가족여성문학군(祁氏家族女性文學群)의 형성 및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두 시인의 작품에 나타난 시작 활동의 특징, 이별에 대한 감정, 여성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통하여 사대부 계층의 문학과는 상이한 중세 여류시의 작품경향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영민은 “사대부가 여성의 작품이 많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배적 사유에 맞는 역할을 실천하면서 한시 창작을 겸비하여 뛰어난 여성으로 평가받은 여성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⁴⁾고 하였는데, 서영수합과 상경란은 모두 각 나라의 사대부가 여성시인이고 한시 창작을 겸비한 뛰어난 여성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 두 시인은 모두 그 신분의 전형에 부합되지 않는 특수한 성향의 시를 지은 사대부가 여성시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치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서영수합과 상경란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 시인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본론에서 상세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핵심적인 비교 연구의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두 시인의 본격적인 시작 활동은 모두 출가 후이며 가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으로서 사회 제도에 대한 금기 탈출을 시도하는 것을 공통점의 기준으로 삼아 어떤 사회 배경에서 어떤 가정환경 속에서 작품을 지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물론 탈출의 결과가 부동함에 따라 사대부가 여성문학에 미친 영향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서영수합의 작품은 연작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시제로 따지면 115편이고 연작시의 시수까지 따지면 총 191수이다.

3) 상경란의 작품 수에 대하여 최근 “李貴連, 「明末清初山陰祁氏家族女性文學研究」, 南京: 南京師範大文學 碩士學位論文, 2009, pp.25~26.”에서 73수와 67수라는 두 가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胡文楷, 앞의 책, p.156.”에서 상경란의 시를 67수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기존연구들 대부분이 67수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한다.

4) 박영민, 「시화의 기생한시 담론과 심미의식」, 『한문교육연구』 2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p.334.

두 번째, 두 시인은 모두 사대부가 여성시인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이별에 관한 시를 지었다. 나아가서 두 시인의 시는 기타 계층의 여성시인과 달리 입에 대한 상사(相思)와 연모, 떠나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유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서영수합은 주로 자식과의 이별에 대하여 세 가지 감정으로 노래하였다. 상경란은 남편과 동성친구의 이별에 대한 감정과 남편의 殉國으로 인한 이별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서영수합과 상경란이 여타 사대부가 여성시인과 달리 이별의 시를 지은 것을 공통점의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두 시인의 이별 상대나 표현 방식의 차이점도 부각시키려고 한다.

세 번째, 두 시인의 사대부가 여성시인으로서 시 창작하면서 금기 탈출의 결과와 연관되어 그녀들이 어떤 자의식을 드러냈는지를 알 수 있다. 서영수합은 시작을 하면서 윤리와 욕망의 조화 추구에 노력하였다. 한편은 본가의 훈계를 잊지 못하고 유교이념을 지키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릴 때부터의 욕망을 남편의 권유로 발산하고 실현하는 기회로 삼으려 함으로써 모순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이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힘썼다. 상경란은 여성의 시작에 자유로움을 인정하는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출가 후 그녀는 문학창작을 본격적으로 추구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 여성시사를 건립하였다. 남편 순국 후 그녀의 시작활동에 위기가 닥쳐왔으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독립적인 자의식을 더욱 강화하여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작 활동을 지속하였다. 필자는 두 시인의 자의식을 공통점으로 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 여성시인로서의 자의식을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상 세 가지 관점으로 서영수합과 상경란의 공통점을 비교하는 동시에 차이점도 부각시키면서 두 시인에 대하여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서영수합에 대한 비교 연구 현황은 큰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녀의 비교 연구 대상은 오직 그녀가 차운했던 중국의 몇 시인과 국내 여성시인에만 국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영수합의, 신분의 전형에 부합되지 않는 성향을 중심으로 두어 다양화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첫 발로써 국내 여성이 아닌 국외 여성을 비교 상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두 시인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중 여성문학의 흥성 시기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문학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아직 한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상경란의 시 번역을 처음으로 시도하고자 한다.⁵⁾

2. 연구사 검토 및 서술방향

서영수합에 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모두 합쳐도 몇 편에 불과하다.⁶⁾ 그리고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서영수합의 차운시(次韻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영수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 연구 형태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서영수합의 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연구다.⁷⁾ 김려주는 서영수합의 시작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대부가 여성시인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정화는 서영수합의 詩精神과 詩世界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최정운은 서영수합의 시에 나타난 여성적인 섬세한 정감을 조명하는 데 노력했다. 이들 연구에서는 신분 전형에 부합되지 않는 서영수합의 특수한 감정에 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서영수합과 다른 여성시인을 비교한 연구다.⁸⁾ 김명희는 서영수합과

5) 상경란은 중국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대부가 여성시인이었다. 그리하여 그녀의 작품은 1960년에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발행하여 판매되었지만 그 후 점차 대중들의 시선밖으로 벗어나 작품의 출판도 이쯤에서 멈췄다. 그 해 이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만 소지하고 있지만 훼손되거나 잃어버린 것이 대부분이다. 훼손된 부분을 다시 보완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고전여성문학 연구자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왔다. 상경란의 작품은 지금의 중국서점에서는 구하기 힘든 작품이 되었다. 개별적인 도서관이나 일부 고전작품을 판매하는 책방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서는 이 작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6) 김명희, 「서영수합과 홍유한당」, 『논문집』 45, 강남대학교, 2005, pp.1~19.
김려주, 「朝鮮後期 女性文學研究-令壽閣 徐氏의 漢詩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6권 1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pp.185~229.
안주영, 「18·19세기 사대부 여성 한시 연구-호연재 김씨, 영수합 서씨, 삼의당 김씨의 작품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1~80.
이연희, 「서영수합과 홍유한당의 한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1~89.
이정화, 「서영수합의 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p.1~90.
_____, 「서영수합의 시의 풍격 연구-次韻詩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pp.45~64.
장인애, 「허난설현과 서영수합의 한시에 나타난 여성상」, 『한문학논집』 34, 근역한문학회, 2012, pp.157~216.
최정운, 「令壽閣詩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1~63.

7) 김려주, 위의 논문, pp.185~229.
이정화, 위의 논문, pp.1~90.
최정운, 위의 논문, pp.1~63.

8) 김명희, 위의 논문, pp.1~19.
이연희, 위의 논문, pp.1~89.
장인애, 위의 논문, pp.157~216.

딸인 홍유한당을 비교하면서 두 시인의 시 특성과 정체성을 파악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시 특성을 통해 두 시인이 모두 귀족문벌시인이라는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이연희는 서영수합과 홍유한당을 모두 신분상, 문집이 남아있는 것으로 비교를 시도하고 있지만 비교의 목적과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인애는 서영수합과 허난설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시작품에 나타난 시의식을 통하여 현실을 인식하고 지향하는 모습을 분석하는 것은 비슷한 시대, 가정환경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시의식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각자의 출가 후의 생활의 간격이 벌어짐에 나타난 시의식의 반영과 차이는 홀시 되었다.

세 번째는 서영수합 시의 풍격에 관한 연구다.⁹⁾ 이 연구는 서영수합에 관한 이정화의 두 번째 연구로서 차운시에 중점을 두어 서영수합이 차운한 중국시인의 원시와 비교를 진행한 것이다. 원시의 작가가 수준이 높은 대가여서 물론 서영수합 나름의 특징은 있지만 원시와 대비하였을 때의 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안주영¹⁰⁾의 연구가 있는데 주로 18·19세기 서영수합을 포함한 세 명의 사대부가 여성작가의 한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세 명의 작가에 대하여 동시에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치밀하고 심화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다음은 상경란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경란에 관한 연구¹¹⁾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9) 이정화, 앞의 논문, pp.45~64.

10) 안주영, 앞의 논문, pp.1~80.

11) 羅芸, 「試論明清時代環境對商景蘭文學成就的影向」, 『科教文匯』, 安徽: 科教文匯雜誌社, 2012, pp.69~70.

董雁, 「女性的抒書與企望-商景蘭的文化活動與女性意識」, 『西北農林科技大學學報』第十卷 六期, 陝西: 西北農林科技大學, 2010, pp.110~115.

付建舟, 「商景蘭詩歌的女性特質與女性自覺」, 『湖北大學成人教育學報』第三十卷 六期, 湖北: 湖北大學成人教育學院, 2012, pp.64~71.

石旻, 「亂離中的: 明末才女商景蘭及其婚姻與家庭」, 『中國典籍與文化』第三期, 北京: 教育部全國高等院校古籍整理研究工作委員會, 2001, pp.118~124.

楊艷琪, 「明代祁彪佳與文學女性」, 『北京印刷學院學報』第十六卷 三期, 北京: 北京印刷學院, 2008, pp.55~58.

吳琳, 「明清易代與山陰名媛商景蘭的詩境開拓」, 『紹興文理學院學報』第三十三卷 三期, 浙江: 紹興文理學院, 2013, pp.11~15.

李貴連, 「明末清初山陰祁氏家族女性文學研究」, 南京: 南京師範大文學 碩士學位論文, 2009, pp.1~88.

_____, 「老大嫁作商人婦脫却紅妝入空門——女尼谷虛生平考述及其與祁氏家族女性交遊探析」, 『社會科學論壇』第十期, 河北: 河北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09, pp.171~175.

_____, 「商景蘭卒年考辨」, 『長春大學學報』第十九卷 一期, 長春: 長春大學, 2009, pp.54~56.

_____, 「黃媛介生平經歷及其與山陰祁氏家族女性交遊考述」, 『長春大學學報』第二十一卷 五期, 長春:

첫 번째는 상경란의 생애, 졸년, 가문, 가정에 관한 연구다.¹²⁾ 이귀련(李貴連)은 상경란에 관한 연구를 2009년에 두 차례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상경란을 위주로 한 기씨가족(祁氏家族)의 여성문학, 상경란의 생애, 가정 등 다양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그 다음 석민(石旻)의 연구는 상경란의 혼인 후의 삶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상경란의 작품 성취에 대한 연구다.¹³⁾ 나운(羅芸), 이귀련(李貴連), 주명초(周明初)는 주로 작품텍스트 분석을 통해 상경란의 작품 속에 들어있는 남다른 시경(詩境)을 개척하고 그녀가 생활한 환경을 통해 어떤 문학적 성취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상경란의 여성 의식, 여성특질 등 여성시인에 대한 연구다.¹⁴⁾ 이런 부류의 연구들은 주로 상경란이 여성으로서 어떤 사회적 의식을 갖고 있는지, 여성시인으로서 어떤 작품을 쓰고 어떤 작품을 추구하는지, 작품에서 어떤 여성의 특질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네 번째는 상경란의 교유 관계에 대한 연구다.¹⁵⁾ 상경란이 교유한 상대는 다양한 신분계층의 여성들이다. 그녀는 교유 대상의 신분을 막론하고 교유 상대를 광범위하게 하였으며, 교유 상대와 시를 주고받은 것을 통해 여성으로서 대단한 식견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다섯 번째는 상경란의 남편이 여성문학에 대해 취한 관점에 대한 연구다.¹⁶⁾

長春大學, 2011, pp.71~73.

周明初, 「‘悼亡’并非悼妻的專稱-讀明代六位女詩人的‘悼亡’詩」, 『中國文化研究』 冬之卷, 北京: 北京言語大學, 2008, pp.38~44.

- 12) 李貴連, 앞의 논문, pp.1~88.
 _____, 앞의 논문, pp.54~56.
 石旻, 앞의 논문, pp.118~124.

- 13) 羅芸, 앞의 논문, pp.69~70.
 吳琳, 앞의 논문, pp.11~15.
 李貴連, 앞의 논문, pp.1~88.
 周明初, 위의 논문, pp.38~44.

- 14) 董雁, 앞의 논문, pp.110~115.
 付建舟, 앞의 논문, pp.64~71.
 石旻, 앞의 논문, pp.118~124.

- 15) 李貴連, 앞의 논문, pp.1~88.
 _____, 앞의 논문, pp.171~175.
 _____, 위의 논문, pp.71~73.

- 16) 楊艷琪, 앞의 논문, pp.55~58.

양염기(楊艷琪)의 연구는 상경란의 남편 기표가의 여성문학에 대한 태도, 즉 출신을 막론하고 모든 여성문학에 대하여 지지와 옹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이상 상경란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그녀에 대한 연구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도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시작 활동의 특징, 이별에 대한 감정, 여성시인으로서의 자의식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 지금까지 한국의 여성한시 비교연구사를 살펴보면 중국 여성시인인 상경란과 비교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서영수합과 비교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서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자료와 연구를 참고하여 서영수합과 상경란의 생애와 작품을 개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두 시인이 여타 사대부가 여성시인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감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어떤 삶과 생활환경을 통해서 금기 탈출을 시도하였는지, 그것이 어떠한 자의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두 시인의 한시 작품이 양국의 문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생애 및 작품 개관

1. 서영수합의 생애와 작품 개관

조선시대는 유교적 가부장제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시대이다. 윤리규범을 기초로 사회적 신분질서를 중시하였고, 여성에게는 부덕과 정절의 미덕을 요구하였으며, 여성학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였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여성이 학문이나 문학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여성교훈서인 『내훈』을 편찬하여 여성에게 읽히고 그 제도에 순응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지위는 점점 동등한 자리에서 멀어져 갔다. 그리하여 남성을 사회의 중심으로 여기고, 여성은 그냥 단순 가정 일에만 한정하는 하찮은 존재로 보았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산업이 융성하고 문학이 발달됨에 따라 광범한 계층의 문학 활동이 활발해졌다. 더욱이 조선후기 영·정조 시대에 이르러 문학이 최고봉에 다다랐으며 여성문학도 이에 따라 큰 자극을 받아 전에 비해 좀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한시의 주요 담당계층인 사대부가 남성이 여성 학문, 문학 활동에 대하여 찬성하는 소리도 많아졌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영수합의 남편 홍인모이다.

조연숙에 의하면 “조선후기 여성한시 문학은 조선 전기 여성한시 맥을 이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작가가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여 여성한시 문학의 최대 융성기를 이루었다.”¹⁷⁾고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조연숙의 저서를 근거로 삼아 여성한시 문학의 최대 융성기인 조선후기의 여성 작가를 아래 도표와 같이 계층별로 나누어 보았다.

17) 조연숙, 『한국고전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p.15.

<표 1> 조선후기 여성 작가의 계층별 통계

계 층	인 원 수
왕실 여성과 궁인 ¹⁸⁾	3명
사대부가 여성 ¹⁹⁾	24명
소실과 기녀 ²⁰⁾	13명
촌녀 ²¹⁾	1명

위의 표를 통해 여성 한시 문학의 최대 융성기인 조선후기에 여성 작가로 활동한 사람 중 사대부가 여성 작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사대부가 여성 작가의 인원수는 다른 계층의 인원수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의 사대부가 여성 작가는 문학적으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사대부가 여성 작가의 전형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서영수합을 본고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서영수합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보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남편 홍인모의 문집인 『족수당집』의 부록에 있는 큰아들 洪奭周가 쓴 「貞夫人行狀」을 기본텍스트로 삼고, 기존연구와 저서를 참고하여 그녀의 가족배경, 가정상황, 생활환경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서영수합(1753~1823)의 본관은 대구의 달성이다. 아버지는 조선후기 강원도 관찰사, 이조참판을 지낸 徐迥修(1725~1779)이며 어머니는 농암 김창협(1734~1807)의 후손이자 미호 김원행의 딸이다. 14세인 1766년 서영수합은 자신보다 두 살 연하인 洪仁謨(1755~1812)와 혼인하였다. 남편 홍인모의 본관은 풍산이며 벼슬은 호조참의와 우부승지를 지내었다. 서영수합의 본가인 달성 서씨와 시가인 풍산

18) 왕실여성과 궁인 : 인목대비, 숙선옹주, 이씨.

19) 사대부가 여성 : 김운, 김연재호, 광청창, 신부용당, 김삼의당, 강정일당, 황정정당, 홍유한당 등이 있다.

20) 소실과 기녀 : 운초, 김금원, 박죽서, 강지재당, 평양 추기, 계월, 취련, 앵무, 금선 등이 있다.

21) 이것은 “일반 평민 여성의 한시 한수가 배경설화와 함께 전하고 있는데 『대동시선』에는 이 시가 촌녀의 「사운백하(辭尹白下)」라는 제목을 실려 있다”고 한데 따른 것이다. 조연숙, 『한국고전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p.247.

홍씨는 모두 당대 명망이 높은 별열가문이었다.

서영수합의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남편 홍인모의 만년 시우로 시문을 주고받는 동안에 남편에 의해 지어진 당호인 令壽閣을 성씨에 붙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도 그녀를 서영수합 혹은 영수합 서씨로 부르고 있다. 그 외 남편은 또 그녀의 居室 이름을 令壽라고 붙여준 것이 있는데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²⁾

서영수합은 어릴 때부터 특별히 총명하고 글을 좋아하였으며 견식과 도량이 절대적으로 常人을 능가하였다. 아버지인 서형수는 그녀가 늘 丈夫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으며, 할머니인 李氏부인은 그녀를 특별히 사랑하여 늘 여자는 문사에 능한 자이면 명줄이 짧다는 원인으로 그녀한테 문학을 배우는 것을 엄금하였다. 출가 전에 서영수합은 이미 經典과 典籍을 널리 섭렵한 학문적 바탕을 갖추었으나 시 창작에 관해서는 볼 수 없었고, 출가 후 10년(1776)이 되어 서야 시가에서 그녀가 글을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남편 홍인모의 만년에 시를 화답하는 상대로서 본격적인 작품 창작을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 홍인모의 초명은 大榮이고 字는 而壽이며 호는 足睡居士이다. 아버지는 영의정 樂性이다. 1783년(정조 7) 사마시에 합격한 뒤 門蔭으로 벼슬길에 나가 호조참의, 우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足睡堂集』이 있고, 편서로는 『皇明史略』, 『唐名臣言行錄』, 『左傳人名譜』, 『春秋公穀合選』, 『毛詩多織編』, 『續史略』 등이 있으며, 古文 數편과 古近體詩 2,000여 편이 있다.²³⁾

서영수합은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다. 3남에는 맏아들 홍석주(1774~1842), 둘째 아들 홍길주(1786~1841), 막내아들 홍현주(1793~1865)가 있다. 2녀에는 맏딸 홍원주²⁴⁾(1791~?)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둘째 딸이 있다. 그들은 훌륭한 인재가 되라는 서영수합의 훈계 아래서 자라 홍석주는 좌의정과 대제학이란 높은 관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고, 홍현주는 정조의 둘째 딸인 숙선옹주와 혼인하여 영명위로 봉해졌으며 문장이 뛰어나 당대에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높은 관직과 부마가 된 그들을 걱정한 서영수합은

22) 김려주, 「朝鮮後期 女性文學研究-令壽閣 徐氏의 漢詩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6권 1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p.187.

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4348

24) 홍원주의 당호는 유한당인데 일반적으로 그녀의 이름보다 그녀의 당호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들에게 늘 당부의 글을 지었다. 그 외 홍길주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지만 역시 당대 뛰어난 문장가이자 경학자로 성장하였다. 홍원주는 어머니인 서영수합의 영향을 받아 뛰어난 詩才로 당대 뛰어난 여류 시인이란 평을 받았으며 시문으로 이름이 높았다. 홍원주의 시집 『幽閒集』에는 156편의 시작품이 실려 있다. 홍원주의 시작품에서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보인다. 때문에 홍원주의 경우에도 서영수합이 가장 많이 차운한 중국시인 두보의 시를 차운하고 애용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서영수합의 시집인 『壽壽閣稿』는 남편 홍인모의 문집인 『족수당집』의 뒤편 부록에 수록되어 전해져 왔는데 수록된 작품은 한시가 115편 191수, 辭가 1편이다. 모두 남편 홍인모 만년에 詩友가 된 후에 창작한 작품이다. 서영수합의 전체 시작품은 모두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지만, 그녀는 대량의 시를 창작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口述을 통해 창작하였을 뿐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록한 시는 단 한 수도 없었다. 나중에 남편 홍인모가 서영수합 몰래 자식들을 시켜 그녀가 읊은 시작품을 일일이 기록하게 하여 시집을 묶어 남편의 문집에 실어 1824년 맏아들 홍석주가 간행하였다. 서영수합은 구술의 형식으로 작품을 창작하였지만 남편 홍인모와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夫唱婦隨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1812년 서영수합은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시 「次韻」을 지어 지향하는 田園생활의 꿈을 깨뜨려 현실 생활 속에서 안식을 찾고자 故園으로 갔다. 같은 해에 서영수합의 남편 홍인모는 세상을 떠났다. 서영수합은 남편 홍인모의 죽음과 동시에 자신의 시작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1823년 평온하고 아무런 기복이 없는 담담한 71년 인생을 마쳤다.

서영수합의 시집 『영수합고』는 남편 홍인모의 문집인 『족수당집』의 卷之六에 수록되어 전해져 오는데 수록된 한시 작품은 115편 191수이고 그 외 또 辭 1편이 있다. 이 시집은 남편의 문집과 함께 1824년 큰아들 홍석주에 의해 간행되었고 詩集의 전반 작품은 모두 남편 홍인모 만년에 시우가 된 뒤에 창작한 작품들이다. 그 밖에 또 큰아들 홍석주가 쓴 「貞夫人行狀」이 덧붙여 있어 그나마 서영수합의 생애 면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서영수합의 시작품을 살펴보면 큰아들을 사행에 보내거나 중요한 사건과 연관되어 지은 시작품 등 일부는 창작 연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나머지 작품들의 경우 정확한 연도 추정이 어려운 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텍스트 『영수합고』는 남편 홍인모의 문집 부록에 실려 있는 것으로서 허미자가 영인한 『조선조여류시문전집』의 권2에 실린 것이다. 허미자의 텍스트는 규장각 소장본 및 장서각 소장본과 동일본이다.

2. 상경란의 생애와 작품 개관

명말 청초는 사회생활, 사상문화면에서 거대한 변혁을 가져왔고 상품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사회물질조건이 비교적 크게 개선되어 사회풍기도 점차 개방적이었다. 부분적인 사대부문인들은 여성들의 문학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심지어 여성 작품의 수집과 여성문학 창작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일부의 사대부문인은 공식적으로 女弟子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李贄(1527~1602), 袁枚(1716~1797) 등이 있다. 그러므로 명말 청초의 여성 작가의 인원수는 胡文楷²⁵⁾가 저서를 통해 밝힌 것처럼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동시에 작품수도 상당하다. 기존 孫康宜의 연구에서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명·청시대 이상의 여성 시인을 생성할 수 없었으며 단지 삼백 년 사이에도 이천 여 명의 여류 시인이 전집을 간행했다.”²⁶⁾고 하였다.

다음은 필자가 胡文楷의 『역대부녀저작고(歷代婦女著作考)』를 근거 자료로 역대 여성 작가의 인원수를 정리해 본 것이다.

<표 2> : 중국 역대 여성 작가의 시대별 통계

시 대	여성 작가의 인원수(계층구별없이)
漢魏六朝	33人
唐五代	22人
宋遼	46人
元代	16人
明清	3910人

25) 胡文楷, 『歷代婦女著作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pp.1~55.

26) 孫康宜, 「明清文人的經典論和女性觀」, 『江西社會科學』, 江西: 江西省社會科學院, 2004, p.206.

한편 명말 청초에 대한 시간 구분은 논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상연(常娟)²⁷⁾은 타인의 저서를 통해 명말 청초를 세 가지 방식²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명나라 만력 원년(萬曆元年, 1573)부터 청나라 강희 말년(康熙末年, 1722)까지이다. 그런데 이런 단계 별구분 아래서 명·청의 과도기에 있는 여성 작가의 인원수도 단계 구분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연구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여성 작가의 생몰년과 구체적인 창작 시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필자는 명·청시기의 여성 작가 인원수를 구분 없이 함께 합산한 후 통계 수치를 내렸다.

필자는 또 胡文譜의 著錄을 기준으로 여성 작가의 인원수를 살펴본 결과 명·청 시기의 여성 작가 인원수는 어느 시대의 여성 작가의 인원수보다도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작가의 인원수가 많으면 작품도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명·청 시기가 여성 문학 발전의 최고 흥성 시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상경란은 바로 이 명말 청초에 나타난 사대부가 여성 작가로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상경란의 생애에 대해서는 남편 祁彪佳의 문집 『祁彪佳集』 중 남편에 관한 생애 기록에 첨부된 그녀의 생애에 관한 기록과 기존연구, 저서를 참고하여 그녀의 가정, 생활, 문학 창작의 일생을 살펴보겠다.

상경란(1605~1676?)의 字는 미생(媚生)이고 본관은 절강 회계(會稽)이며 명나라 吏部尙書를 지낸 商周祚²⁹⁾의 셋째 딸이자 희곡가인 祁彪佳(1602~1645)의 부인이다.

사대부 여식인 상경란의 혼전 생활에 관한 기록은 아주 적어 현재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商景徽의 시에 “當年繡戶集群仙，一旦分飛罷管弦。”(「雨集詠離堂」中)이라 한 것을 통해 당시 閨中 친구들이 모여 즐겁게 보내는 과정은 상경란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정경임을 추정

27) 常娟, 「明清之際的才女群及其家族化」, 重慶: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p.2.

28) 첫 번째는 명나라의 만력 원년(1573)부터 청나라의 강희 말년(1722)까지, 두 번째는 명나라의 가정(1507) - 만력(1573) - 청나라의 건륭(1711) - 가경(1760)까지, 세 번째는 명나라의崇禎 말년(1644)부터 청나라의 강희 전기까지이다.

29) 상주조(商周祚) : 생몰년 미상. 다만 1611년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1637년 都御使로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인 1638년에 吏部尙書의 자리까지 올라 당시 관직 서열이 높은 요직에 있는 것만 알 수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어릴 때부터 좋은 문화 분위기 아래서 생활하였고 이것은 그녀의 미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³⁰⁾

상경란의 동생 商景徽의 字는 祠音이고 밑에 딸 한명을 두었는데 이름이 商采이고 字는 云衣이다. 두 사람은 모두 시에 능하였고, 당시 사람들의 稱賞을 받은 것을 보면 商氏가문의 여성은 모두 양호한 교육과 높은 문학 소양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들은 또 후기에 와서 상경란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성시사의 성원으로 당시 여성 문학에 큰 역량을 발휘하였다. 상경란과 상경휘 자매는 ‘伯仲夫人’이란 칭을 받았고 세상에서는 두 사람을 越中閨秀 시인으로 冠하였다.³¹⁾

16세인 1620년 상경란은 기표가와 혼인하였다. 남편 기표가의 字는 虎子、幼文, 又字는 弘吉이고 號는 世培, 별호는 遠山堂主人、寓山居士이며 浙江 山陰 사람이다. 藏書家 祁承燾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기표가는 1618년 17세인 젊은 나이에 浙江 鄉試에 합격했고 1622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일찍 벼슬길에 나갔다. 기표가는 글을 아는 風雅之士였으므로 현존한 『祁忠惠集』(淸道光15년각본), 『祁忠敏公日記』(1937年紹興縣修志委員會校刊)등 문헌으로 보면 그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情趣도 중시하였다. 심지어 당시 이름난 기녀인 柳如是와 교유한 것을 보면 여성문학에 대해서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³²⁾

혼인 후의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여 기표가는 첩을 들이지 않았다.³³⁾ 심지어 수차례의 타지 임명 기간에도 늘 상경란의 동반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혼인생활의 대부분 시간을 함께 지내왔다.³⁴⁾ 이 시기의 상경란은 남편 기표가와 애정이 깊어 시에 대한 감정표출이 두드러졌고 또 늘 안락한 생활을

30) 石旻, 앞의 논문, p.118.

31) 『婦人集』: “會稽商夫人, 以名德重一時. 論者擬于王氏之茂宏, 謝家之有安石.”, (注)慈谿魏耕曰: “撫軍居恆有謝太傅風, 其夫人能行其教. 故玉樹金閨, 無不能詠, 當世題目賢媛以夫人爲冠.” 胡文楷의 앞의 책 p.156.

32) 楊艷琪, 앞의 논문, pp.55~58.

33) 『靜志居詩話(朱彝尊)』: “祁商作配, 鄉里有金童玉女之目. 伉儷相重, 未嘗有妾媵也.” 胡文楷의 앞의 책 p.156.

34) 祁彪佳的 일기에 기록한바와 같이 崇禎4(1631)년말부터 弘光元年乙酉(1645)인 십여년간의 일상행사 중 가정생활방면에 관한 것도 일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祁商 부부간 진실한 생활상황을 파악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의지하는 감정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유지하여 곤란에 시달린 적이 없었으므로 시 창작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시 창작은 남편의 찬성과 지지를 받았으며 이것을 토대로 그녀를 중심으로 기씨여성집단을 형성하였다. 이 집단은 부동한 신분계층 사람들과의 교류도 빈번하였다. 祁商 부부는 모두 문재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존한 작품에는 부부 사이에 相互 唱和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상경란이 남편보다 시를 더 잘 짓는다고 한다.³⁵⁾

하지만 이런 안락한 생활은 얼마 오래 가지 않았다. 1645년 南京이 함락 되고 蘇州, 杭州가 청나라 군대의 공략을 받아 남편 기표가는 단식하고 물에 뛰어들어 殉國하였다. 그리하여 祁商 부부의 행복한 생활은 25년 만에 멈추게 되었다. 이때 상경란은 42세였다.

남편이 순국 후 상경란은 그 슬픔을 저명한 「세상 떠난 남편을 애도함(悼亡詩)」 二首³⁶⁾를 지어 표현함으로써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에서는 강렬한 국가의식으로부터 남편을 잃어버린 비통한 감정과 약간의 원망으로 轉變하였다가 독자들을 또 다시 남편의 충성과 大義에 주목시키는 동시에 남편을 높이 찬양하였다. 이런 감정 표출의 전변은 明·淸 교체라는 시대의 영향과 당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은 상경란 자신이 亂世에 남편의 순국으로 각성되어 나라의 멸망, 남편의 순국을 자신의 손으로 짚고 굶은 도망시 2首에 담아낸 결과라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슬픔과 대의에 대한 정확한 시야,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작가의식을 보여주었다.

상경란은 슬하에 3남, 4녀를 두었다. 3남은 맏아들 기동손(1621~1636), 둘째 아들 기리손(1627~1687), 셋째 아들 기반손(1632~1673)이다. 그런데 3남 중 맏아들인 기동손³⁷⁾이 일찍 천연두(天花)로 요절하였기 때문에 기존연구나 많은 저서에서 기리손을 장남으로 기반손을 차남으로 서술하고 있다. 4녀³⁸⁾는 맏딸 기덕연(약1629~1693이후), 둘째 딸 기덕옥(1630~1717), 셋째 딸 기덕경

35) “一般人都說她的詩比她丈夫寫得還好.” 祁彪佳, 앞의 책 p.3.

36) 「悼亡詩」 2首는 “祁彪佳, 앞의 책, pp.260~261.”을 참조하였는데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其一, 公自成千古, 吾猶戀一生。君臣原大節, 兒女亦人情。折檻生前事, 遺碑死後名。存亡雖異路, 貞白本相成。其二, 鳳凰何處散, 琴斷楚江聲。自古悲荀息, 於今弔屈平。皂囊百歲恨, 青簡一朝名。碧血終難化, 長號擬墮城。”

37) 祁同孫(기동손)이 상경란의 맏아들로 태어나 16살 되던 해에 천연두(天花)에 걸려 일찍 요절한 내용에 관해서는 “위의 책 p.2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 李貴連, 앞의 논문, p.70.

(1636~1662), 넷째 딸 기덕환(1638~?)이다. 이밖에 기리손의 부인 장덕혜, 기반손의 부인 주덕용이 있다. 두 아들의 부인을 포함한 기씨 가족의 여성들은 모두 시에 능하였다. 심지어 대부분의 기씨 가족 여성들이 상경란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씨 가족여성집단을 형성하여 활발한 문학 활동을 이어왔으며 여성문학에 중요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남편이 순국 후 42세인 상경란은 자녀교육의 중임을 맡게 되었고 집안 행사나 일상생활의 번잡한 일들도 전부 그녀의 몫이 되었다. 상경란은 자식교육에 있어 문학하는 것은 과거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학식이 높은 선비가 되는 것(讀書成大儒)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상경란이 자식에게 학문에 대한 순수함을 키워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청나라의 집권으로 명나라 열사가족으로서 청나라에 벼슬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긴 것도 작용한 것이다. 심지어 상경란은 50세(1654) 되던 해 자식들이 그녀를 위해 생일잔치를 벌였지만 나라의 멸망과 남편의 죽음은 여전히 그녀가 잊지 못한 아픔이었기에 「五十自敘」³⁹⁾란 작품으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였다.

1662년 62세 되던 해 그녀한테 더 큰 아픔을 안겨 준 것은 바로 셋째 딸 덕경의 죽음과 둘째 아들 반손이 中通으로 인해 수감된 것이다. 그 후 반손은 수감된 곳에서 도망쳐 돌아왔지만 出家하여 집안과의 연락을 끊었다. 얼마 되지 않아 반손도 죽었다. 이들의 삶의 고통은 고국인 명나라를 잊지 못하고 비밀리에 명나라를 회복하려는 의향이 있어 생성된 것이다.

1676년⁴⁰⁾에 상경란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고 탄식하며 즐하였다.

상경란의 시집은 『錦囊集』, 『錦囊詩餘』 등이 전하고 있다. 『금낭집』과 『금낭시여』의 통칭은 『香奩集』인데 나중에 『商夫人錦囊集』으로 알려져 전해왔다. 상경란

39) 「五十自敘」: 歲甲午十月, 我年當五十。知命猶未能, 知非正其日。堂中伐大鼓, 笙竽張四壁。大兒捧兕觥, 小兒列瑤席。諸婦玉面粧, 諸孫亦林立。拜跪不可數, 彩衣紛如織。各各介眉壽, 深杯幾盈百。九微奪明月, 滿座皆佳客。頌祝吐奇葩, 珠璣已成襲。人生邁歡會, 歡會莫此極。我心慘不樂, 欲泣不成泣。酸風射眼來, 思今倍感昔。兩兒長跪請, 問母何愴惻。或者兒罪深, 孝心不上格。俯首不能言, 中懷自籌盡。鳳凰不得偶, 孤鸞久無色。連理一以分, 清池難比翼。不見日月顏, 山河皆改易。如彼斷絲機, 終歲不成匹。忍淚語兩兒, 汝曹非不力。行樂雖及時, 避難須儉德。我家忠孝門, 舉動爲世則。行當立清標, 繁華非所識。事事法先型, 處身如安宅。讀書成大儒, 我復何促刺。我本松柏姿, 甘與歲寒敵。揚名顯其親, 此壽同金石。 禎彪佳, 『禎彪佳集』, 北京: 中華書局, 1960, p.272.”

40) 필자는 “李貴連, 앞의 논문, pp.54~56.”과 “石旻, 앞의 논문, pp.118~124.”에 근거하여 상경란의 가족이 다음과 같은 사망 순서를 보인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1636년에 맏아들 기동손의 요절, 1645년에 남편 기표가의 순국, 1662년에 셋째 딸 덕경의 사망, 그리고 셋째 아들 반손은 상경란이 즐하기 전에 사망하였고, 상경란이 즐한 후 둘째 리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의 『금낭집』에는 詩 67수, 『錦囊詩餘』에는 詞 94수, 그 뒤에는 補遺詩 3수, 遺文 1편이 있는데 이것은 남편 기표가의 문집 『기표가집』의 뒤편 부록에 실려 있다. 그 밖에 부록에는 딸인 祁德淵, 祁德宦, 祁德瓊, 며느리인 張德蕙, 朱德蓉의 詩작품도 함께 실려 있다.⁴¹⁾

상경란의 시작품을 살펴보았을 때 작품의 성향이 전변되는 것은 남편의 순국 후인 것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남편의 순국과 관련된 몇 편의 시작과 나이를 주제로 지은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구들의 정확한 창작 시간은 알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텍스트 『錦囊集』은 남편 기표가의 문집 『기표가집』의 부록에 실려 있는 것으로서 1960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판본이다.⁴²⁾ 하지만 이 문집은 초판만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뒤로 문집이 발행된 기록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 후 『기표가집』에 관한 20년이란 공백기를 두고 1980년에 錢亞新은 『기표가집』의 판본에 관하여 한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⁴³⁾ 이 논문의 게재는 1960년 이후 문집의 발행이 정지된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초판이 발행된 6년 뒤 1966년에 일어난 문화대혁명과 일정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 문화대혁명의 시작부터 10년 동안 중국의 문학 방면에는 거의 정지 상태인 것으로 보면 이 문집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출간 금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 이 사건이 끝난 3년 뒤 문집에 관한 논문이 게재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1) 胡文楷, 앞의 책, pp.155~156.

42) 祁彪佳, 앞의 책, pp.1~366.

43) 錢亞新, 「淡淡<<祁彪佳集>>的版本」, 『江蘇圖書館工作』二期, 江蘇: 江蘇省圖書館學會, 1980.

Ⅲ. 徐令壽閣과 商景蘭의 시작 활동과 시의 특징

1. 시작 활동의 특징

1) 서영수합 : 남편의 권유와 개인적 활동

중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에게 금기란 ‘금하는 사상’, ‘금하는 행동’, ‘삼가는 일’, ‘넘어서면 안 되는 계선’ 등을 말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문학의 흥성시기인 조선후기와 명말 청초의 사대부가 여성시인인 서영수합과 상경란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에게 정해진 제도나 사상의식, 문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활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먼저 조선후기 서영수합의 시작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다.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로서 전반적으로 유교사상을 숭상하고 여성에게 유교적 윤리규범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이 행위에 어긋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속하였다. 특히 여성의 사상과 문학 방면은 제일 먼저 금기시되는 것들로서 단속의 첫 대상으로 삼았다.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널리 읽혀진 교훈서인 『규중요람(閨中要覽)』에서 “여자는 역대 국호와 선대 조상의 이름자를 알면 족하다. 문필의 공교함과 시사를 아는 것은 창기의 본색이요, 사대부가 부녀가 행할 바가 아니다.”⁴⁴⁾라고 하여 사대부가 여성의 문학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압도적인 권위를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여성은 여러모로 사회적 존재로 아무런 힘도 없는 남성의 부속품으로 그들의 통제 아래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통제는 조선후기 사회의 발전과 문학의 발달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 하지만, 이런 느슨함이 금기시되는 현상을 축소하였을 뿐 화근이 뿌리째로 제거된 것은 아니므로 금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서영수합은 바로 조선후기의 사대부가 여성에게 금기시되는 것에 대한 몸가짐의 체득을 선명하게

44) 이것은 “손지수, 『조선시대 여성교육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2, p.90.”를 참조하였는데 『규중요람』은 16세기 퇴계 이황의 저술로 전해져 온 순수 한글필사본으로 내용은 18세기 이덕무가 저술한 『士小節』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드러내고 있는 여성이다. 필자는 서영수합이 처하여 있는 시대적 상황에 근거하여 유교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녀가 어떤 모순적인 생각과 상황에서 시작활동을 했는지를 출가 전, 출가 후, 남편 사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영수합이 출가 전에 어떤 금기의 경계에 서게 되었는지를 보겠다. 서영수합에 대한 후세들의 선입견적인 평가는 신사임당과 마찬가지로 '현모양처'이다. 하지만 '현모양처'를 다룬다면 신사임당이 서영수합보다 훨씬 더 적합성을 띠고 있다. 그것은 서영수합이 외부에서 평가한 것처럼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윤리 규범을 철저하게 체현한 것이 아니라 윤리와 욕망이라는 모순된 사상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근거는 주로 만아들 홍석주가 쓴 서영수합의 행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홍석주의 「貞敬夫人行狀」에 따르면 “선비(先妣-서영수합)는 어렸을 때부터 祝偕隱歌와 도연명의 전원시를 읊기 좋아하셨다.”⁴⁵⁾고 한다. 또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총명하고 글을 좋아하며 견식과 도량이 절대적으로 常人을 능가하였다.”⁴⁶⁾고 한다. 이 두 부분의 서술을 살펴보면 서영수합은 여성이지만 글을 좋아하고 한시 읊기를 즐겼으며 타고난 識度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서영수합의 아버지 서형수는 “나에게는 세 아들이 있지만 다만 네가 남아가 아닌 것이 한스럽다.”⁴⁷⁾고 하였다. 얼핏 보면 서영수합의 아버지 서형수가 그녀의 총명함과 뛰어난 재능을 찬양하고, 남성이 아니어서 탄식하고 아쉬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동시에 서형수가 그녀에게 사상적인 훈계를 하는 일종의 남성 중심적 사상을 전수하는 것도 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남성이 아니다!’, ‘너는 여성이다!’란 메시지이다. 때문에 서영수합은 전통적인 徐氏 가문의 영향 아래서 ‘나는 여성이다!’, ‘나는 문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자신을 경계하고 윤리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문학에 대한 욕망을 숨겼다. 또 서영수합의 할머니인 “李氏부인은 그녀를 특별히 사랑하여 늘 여자는 문사에 능한 자이면 명줄이 짧다는 원인으로 그녀한테 문학을 배우는 것을 엄금하였다.”⁴⁸⁾ 때문에 서영수합은 출가 전에는 아버지의 훈계, 할머니 李氏부

45) “先妣自年少時，常喜誦祝偕隱歌及陶淵明歸園田作.” 허미자, 『조선조 여류시문전집』 권2, 태학사, 1988 p.403.

46) “先妣尤聰悟好書識度絕常人.” 위의 책, p.397.

47) “觀察公嘗歎曰：‘吾有三丈夫子，猶恨汝不爲男兒.’” 위의 책, p.398.

48) “外曾祖母李夫人尤鍾愛先妣，常曰女子能文辭者多薄命，以故禁.” 위의 책 p.398.

인의 문학에 대한 엄금으로 문학을 할 길이 없었으며 서서히 자신의 문학에 대한 갈망과 문학을 하려는 욕망을 이쯤에서 접으려고 하였다. 이런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영향 아래서 서영수합 자신도 유교적 윤리 규범에 맞추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출가 전의 서영수합은 시 작품이 없었고 출가 후 10년이 되어야 시가에서 그녀가 글을 아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남의 집 며느리가 되는 딸의 언행은 곧 친정 집안의 법도와 도리에 짝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양반 집안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딸에 대한 사상교육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⁴⁹⁾ 위의 서술을 살펴보면 서영수합도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이러한 교육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욱이 조선후기는 갈수록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고, 가부장적 가족 구조가 더욱 확고해졌기에⁵⁰⁾ 여성의 문학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느 한 동안만 가능했다. 그러므로 서영수합이 어렸을 때에는 문학에 대한 갈망과 욕망이 徐氏 가문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영향 아래서 금기시 되었다. 하지만 이런 욕망이 남편에 의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서영수합이 출가 후 남편의 시우가 되면서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서영수합은 14세에 풍산 洪氏 가문의 흥인모에게 시집갔다. 흥인모는 성격이 강직하고 權貴를 싫어하여 비타협적이었으나,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곤궁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⁵¹⁾ 그렇기 때문에 부인 서영수합이 문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부정적인 태도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먼저 부인 서영수합한테 자신 만년의 시우가 되어 달라고 권유하였다. 이렇게 사대부 남성으로서 여성이 시를 짓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는 쉽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서영수합은 “남편을 재능의 지지자로 만나”⁵²⁾게 되어 남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 지녔던 문학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시를 짓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서영수합은 본가에서 배웠던 훈계와 경계를 염두에 두고 여성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상에서 완전히 헤쳐 나오지 못했기에 시를 지으면서도 직접 필사하지

4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2010. p.230.

50) 위의 책, p.240.

5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4348

52) 박무영, 「여성 한시의 세계」, 『한국 고전 여성문학의 세계(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8, p.47.

않았다. 그것은 서영수합이 한편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문학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고, 실현하려고 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서씨 가문이 그녀한테 규제한 윤리규범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때문에 서영수합의 욕망과 서씨 가문, 자신을 가둔 윤리 규범의 갈등 속에 처하여 그녀는 더러 금기의 경계에서 머물며 갈팡질팡하게 되었다. 서영수합이 자신의 시에 대한 필사를 거부한 것은 자신이 지은 것이지만 직접 필사하지 않으면 서씨 가문의 훈계를 어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홍씨 가문 이외의 시선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금기의 경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무영의 연구에 의하면 사대부가 여성들은 개인적으로 내밀한 창작의 시간을 갖고 있어 가정내 공간에서는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 자유롭게 시를 주고받는 것이 허용되거나 심지어 장려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서영수합이라고 한다.⁵³⁾ 박무영의 말대로 서영수합은 바로 내밀한 창작의 시간에 주어진 공간에서 창작하였다.

남편 홍인모 만년의 시우가 된 서영수합은 시를 짓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가족이 참여하는 가정 시회(詩會)를 일상적으로 즐기는 삶을 살았다.⁵⁴⁾ 이 시기의 서영수합은 본격적으로 남편의 권유, 시가족들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본가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금기 속에서 탈출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 서영수합의 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擬夜宴桃李園」

이백의 야연 이씨 도화원을 본떠서

……(전략)……,

詠歌倚寶樹,
芳筵月如練.
輕風飄長裾,
閑花落片片.
引盃桂作酒,
揮毫玉爲硯.
熏簾唱永夜,
逸韻競相擅⁵⁵⁾.

보수(좋은 나무)에 기대어 시를 읊으니
연회 자리의 달빛이 명주 같구나.
산들바람에 긴 옷자락이 나부끼고
한가한 꽃이 우수수 날린다.
술잔 들고 맛있는 술을 마시며
옥벼루에 붓을 휘두르다.
형제들이 밤새도록 수창하며
빼어난 운자로 다투며 마음껏 짓는다.

53) 박무영, 앞의 논문, p.47.

54) 이에 대해서 “허미자, 앞의 책, p.401.”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앞의 책, p.22.”를 참조 및 재구성.

남편의 권유로 시우가 된 후 서영수합은 친정에 돌아가 연회에 참석하면서 연회장의 환경에 도취되어 시를 통해 자신의 재질을 선보였다.

이 시는 서영수합이 친정에서 벌인 연회 자리에 형제들과 모여 앉아 주위의 환경에 도취되어 술을 마시며 서로 다투어 시를 읊고 짓는 장면을 읊은 것으로 당나라 이백의 「春夜宴從弟桃花園序」⁵⁶⁾의 장면과 행위를 본받아 노래한 것이다. 시에서 형제끼리 밤새도록 수창하는 것을 보면 좋은 가정적 연회 분위기인 동시에 형제들의 문학적 재질 즉 詩才에 자부심을 가진 것을 尾聯에서 뛰어난 韻字로 다투면서 마음껏 시를 짓는 것으로 자부심을 뽐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런 분위기 아래서 서영수합도 흥에 겨워 자신의 詩才를 보여주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를 지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서영수합은 출가 후 남편의 권유로 시작활동을 하면서 가족이 참여하는 시회나 아녀자들과 수창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시재를 뽐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가 서영수합 시의 주류라 볼 수는 없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남편의 시우로서 자신의 내면 감정을 차분히 드러내거나 아녀자들과 수창하는 경우에도 修身의 자세를 읊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시가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以何如高臥東窓分韻賦各體」

.....(전략).....,

年老身愈閒,
養眞志不惰.
不識滄海寬,
豈知宇宙大.
松陰綠滿地,
幽禽時參座.
澹蕩無俗累,
只將新詩課.
兒女滿眼前,

늙을수록 몸은 더 한가하지만
참을 길러서 뜻을 게으르지 아니한다.
창해의 넓은 줄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주의 광대함을 알리?
소나무 그늘에 땅은 온통 푸르러서
새들도 때때로 찾아와 자리잡는다.
화창한 날씨에 속진의 누도 없으니
다만 새로운 시를 지으려 한다.
아녀자들이 눈 앞에 가득하여

55) 허미자, 앞의 책, p.361. 「擬夜宴桃李園」의 부분을 인용.

56) 李白의 原詩는 「春夜宴從弟桃花園序」이고 「春夜宴桃李園序」라고도 한다.

瓊瑤生咳唾.
兩老忻相對,
白髮眞可賀⁵⁷⁾.

옥 같은 시구들이 침을 뱉듯 쏟아내네.
두 늙은이 기쁘게 맞대어 있으니
백발이어도 진심으로 축하 받을 만하네.

이 시의 全篇은 서영수합이 서로 다른 韻律과 詩體를 합성하여 구성된 것이다. 이 부분의 詩句가 사용한 詩體는 오언고시이다. 시에서 서영수합은 자신의 修身과 精神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시재를 발휘하는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늙어가면서 몸이 한가로워져도 天性을 함양하는 의지를 가다듬고 잘 길러야 하는데 ‘나’ 자신이 바다의 넓은 세계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찌 우주의 광대한 세계를 깨닫겠는가라고 하며 겸손한 어조로 자신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심성을 가다듬고 대자연과 하나가 된 생태에서 修身을 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시를 지으려 하였다. 결국 자연과 동일함을 추구하는 심성과 내면의 정신세계를 감추는 듯하면서도 실은 아녀자들 앞에서 시를 짓는 것으로 이런 자신의 마음을 은근히 토로하고 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정신세계에 대한 은근한 자족감 그리고 가족들과 시작행위를 통한 지적 교감에 의해 타고난 작가적 기질이 노출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음”⁵⁸⁾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서영수합이 아녀자들 앞에서 지은 시구이지만 수창하는 분위기를 띠우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들을 수창의 환경조건을 빌려 차분하게 아녀자들의 앞에서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구에 대하여 김려주는 “영수합의 이러한 면모는 사대부가 부녀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작행위에 대한 양면성인 것이다.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순응하여 禁忌視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런 와중에도 지식인 계급 집단의 특성 속에 시작행위가 생활화·체질화되어 있는 상황의 양면성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양태는 詩세계의 특질과도 깊은 연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⁵⁹⁾고 서술하였다.

57) 허미자, 앞의 책, p.345. 「以何如高臥東窓分韻賦各體」의 부분을 인용.

58) 김려주, 「朝鮮後期 女性文學研究-令壽閣 徐氏의 漢詩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6권 1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p.198.

작가적인 기질과 시작의 욕망을 노출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지은 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지는 않으려 하였다. 그것은 이 시기의 서영수합이 한편으로는 사대부 가문의 여성으로서 윤리의식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지녔던 욕망과 꿈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의 중간선에 서있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서영수합은 서씨 집안과 자신이 정해둔 사상에서 완전하게 탈출하지 못하고 금기의 경계에서 머뭇거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서영수합의 시작품도 아들들의 손에 의해 기록, 간행되었다.

남편 홍인모가 세상을 떠난 후 서영수합은 다시 詩作을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원인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한편은 남편이 돌아간 것으로 서영수합은 生死 이별의 슬픔을 느꼈기 때문에 더는 시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은 그녀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남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남편이 돌아간 후 그녀는 시를 지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조차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시집가족 외의 시선과 자신이 만들어놓은 윤리 규범을 못 이겨 결국 남편의 죽음과 함께 더는 시작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상 서영수합이 금기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시작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출가 전의 서영수합은 문학에 대한 욕망을 품었지만 서씨 가문의 교육과 경계를 받아 자신의 욕망을 숨겼다. 출가 후 10년이 되어서야 시가에서 그녀가 글을 아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 만년의 시우가 되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금기 탈출을 시도하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타인의 시선,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은 윤리에 갇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서영수합의 짧은 시작인생은 모순적으로 시작하여 모순적으로 끝났다. 서영수합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욕망의 실현과 금기의 탈출을 시도하다가 금기의 경계를 벗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남편이 죽었고 이를 계기로 자신을 유교적 윤리 규범에 가둬 넣었기에 다시 유교적인 삶으로 돌아갔다.

2) 상경란 : 가족 여성시사의 조직과 집단적 활동

앞에서 서영수합의 삶을 세 단계로 파악하여 출가 전은 문학에 대한 욕망의 숨김, 출가 후 창작에 대한 갈등과 모순, 남편이 돌아간 후 다시 창작에 대한 욕

59) 김려주, 앞의 논문, pp.198.

망을 접은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서영수첩은 금기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다시 창작에 대한 욕망을 버린 채 다시 사대부가 여성의 본래 삶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상경란은 출가 전, 출가 후, 남편의 순국 이후의 과정을 거치면서 금기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지금부터 상경란이 어떻게 차차 금기를 넘어서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예로부터 여성문학은 장기적인 소외와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으나 명말 청초에 와서 이런 상황이 해소되고, 변모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명말 청초의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계층의 여성문학 상황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여성시가 작품의 흥성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봉건예교적 구속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즉 비록 나라의 교체로 불안정을 겪고 있었지만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종속관념과 유교적인 도덕 기준은 이 시기에 와서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사상이나 문학 방면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금기시되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일부 문인과 사대부들은 여성의 詩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 작품의 수집과 여성문학 창작을 전파하는 중임을 맡았다. 명나라 말기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이지(李贄, 1527~1602), 청나라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원매(袁枚, 1716~1797)와 같은 사대부들은 여성문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봉건예교에 대한 의문을 품었고 심지어 공식적으로 여성 제자를 받아들였다. 이런 문인들의 지지 하에 부분적인 여성들이 자신의 문학적 재질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더 큰 공간에서 문학창작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명말 청초에 시를 쓰고 읊을 수 있는 여성은 절대 소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사회가 그녀들에게 가한 봉건예교의 속박과 사상 억제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여성은 별로 많지 않았다. 특히 사대부가 여성은 전통적인 도덕문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금기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었다. 그런데 상경란은 여성에게 금기시된 사상과 문학의 전반을 뒤엎고 금기의 경계를 넘어선 사대부가 여성이었다. 이에 필자는 상경란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에 근거하여 상경란의 삶을 단계별로 나누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내부적 조건과 외부적 조건을 마련하여 금기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상경란이 출가 전에 금기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조건이 구비되었는지를 보겠다. 상경란의 출가 전 생활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기 때문에 당시 정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찾기 힘든 정도이다. 다만 商氏 집안의 경우 상경란을 비롯한 여성들이 모두 양호한 교육을 받았으며 좋은 문학적 분위기 아래서 비교적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갖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경란의 동생인 상경휘(商景徽)의 시에 “當年綉戶集群仙，一旦分飛罷群弦。”⁶⁰⁾은 「雨集詠離堂」이란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상경휘를 비롯한 규중 친구들과의 모임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양호한 문학적 분위기 아래서 자란 것을 보면 그녀들의 미래 생활과 창작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경란의 출가 전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없으나, 이귀련의 연구⁶¹⁾에 따르면 어조, 심리상태, 의경 등을 통해 「詠石榴花」, 「閨中四景歌·春」, 「閨中四景歌·夏」, 「偶作」, 「美人春睡」, 「美人種花」 등의 작품이 이때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비록 이것은 추측이지만, 동생 상경휘가 이와 비슷한 시기에 「雨集詠離堂」과 같은 작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경란을 비롯한 商氏 집안의 여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학 소양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미래 훌륭한 작품 창작과 금기를 넘을 수 있는 기석(基石)을 출가 전에 이미 마련해 두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상경란의 출가 후 금기를 넘어서기 위한 기석의 공고화와 도전에 대하여 남편을 비롯한 기씨 가족의 여성문학에 대한 찬성, 상경란을 핵심으로 한 가족여성의 시사(詩社)창건, 유교사상의 연장선으로 덕의 중심에서 벗어난 합리화의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상경란은 16세 되던 해에 산음기씨(山陰祁氏)인 기표가(祁彪佳)⁶²⁾에게 시집갔다. 상경란의 남편 기표가는 문학적 분위기가 비교적 짙은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유가의 전통교육을 받았지만 여성들이 교육 받는 것에 대하여 비교적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때문에 혼인 후의 상경란은 작품 창작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상경란은 이런 유력한 환경 아래서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 중임을 맡았다.

60) 石旻, 「亂離中的: 明末才女商景蘭及其婚姻與家庭」, 『中國典籍與文化』第三期, 北京: 教育部全國高等院校古籍整理研究工作委員會, 2001, p.121.

61) 李貴連, 「明末清初山陰祁氏家族女性文學研究」, 南京: 南京師範大文學 碩士學位論文, 2009, p.27.

62) 기표가는 명나라 유명한 장서가(藏書家) 祁承燾의 넷째 아들이다. 네 명의 아들 중에 문학 수준이 제일 높고 기대치도 제일 컸으며 훗날 자신의 『담생당(澹生堂)』이란 장서각을 계승하였다고 한다.

유가에서는 여성에 대한 이상적인 규범으로 德을 강조하였는데 기표가와 기씨 가족의 경우 여성들이 형식상으로 도덕에 대한 규범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덕규범을 추구할 것을 바랐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경란의 작품 창작에 대한 합리성을 제공한 동시에 그녀의 창작 행위를 자식의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 합리화하였으며 이를 이상적인 부덕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리화시켰다.⁶³⁾ 다시 말해 기표가를 비롯한 기씨 가족들은 상경란에 대하여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는 형식상의 유교적인 사상과 규범에 대한 순응을 기대하는 대신에 실질적인 도덕규범의 실천 행위로 그녀의 작품 창작을 합리화하였다.

또 祔·商 부부는 모두 시에 능숙하였지만 기표가의 일기 중에서 그들이 창화(唱和)하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그들의 작품에서도 두 사람의 창화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남편 기표가가 여성문학 창작을 중시하고 추앙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은 상경란이 딸인 기덕경(祁德瓊)의 시집에 서언을 작성하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내 딸은 어릴 때부터 시에 능숙하였기에 매번 구를 구성할 때마다 남편의 칭상을 받았다.”⁶⁴⁾ 비록 이 서언의 기록은 기표가가 딸의 시작에 대하여 칭찬하였다는 간접적인 기록이지만 이를 통해 기표가가 여성의 시작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기표가는 또 가정 이외의 여성시인인 기생 류여시(柳如是)와 교유하면서 그의 시문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⁶⁵⁾ 명칭이 교체된 후 류여시는 또 상경란의 절친 황원개(黃媛介)와 교체한 것으로 보아 류여시와 상경란도 남편 사후에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봉건사회에서 여자가 집안에서 세력을 부러서는 안 되지만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기표가는 집안의 일상 사무를 상경란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상경란은 집안의 일상 사무를 관리함과 동시에 결정권까지 가짐으로써 가정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상경란의 문학적 재질은 출가 전을 기반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남편의 지지와 가족의 허락 하에 더욱 빛을 발하였고 그녀의 작품창작을 위한 양호한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를 상대로 유가에서 요구하는

63) 林稚暉, 「明清之際江南閩秀詩人社會形象研究」, 廣東: 華南理工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3, p.39.

64) “吾女自幼工詩, 每得句卽爲先忠敏所稱賞.” 祁彪佳, 앞의 책, p.297.

65) 楊艷琪, 「明代祁彪佳與文學女性」, 北京: 『北京印刷學院學報』第十六卷 三期, 北京印刷學院出版傳播與管理學院, 2008, p.57.

형식상의 금기를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가정교육 즉 부덕으로 합리화시켰다. 당시 자식에 대한 문학적 교육은 주로 과거와 출세를 목적으로 두었지만 상경란은 단순히 자식의 문학적 재질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기표가를 비롯한 기씨가족들은 단순히 상경란이 유가의 형식상의 금기를 위반하는 데 관하여 일종의 부덕의 옷을 입혔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순국은 상경란의 창작 환경에 본격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남편 기표가는 상경란의 작품 창작에 양호한 환경이나 조건을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마음껏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패막 역할을 해 주었다. 때문에 남편 순국 이후, 상경란의 작품 창작은 위기에 몰렸던 직면하였다. 그렇지만 남편을 막론하고 활발하게 교류했던 노력 덕분에 그녀의 창작은 남편의 순국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었다. 석민(石旻)⁶⁶⁾의 연구에 의하면 상경란의 주요 문학 활동은 오히려 남편의 순국 이후 집중되었다고 한다. 창작 초기에 상경란의 작품은 비교적 유쾌한 규방생활과 출가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노래하고 있지만 남편의 순국 직전과 순국 후의 작품은 확연히 달라져 보인다. 그것은 나라의 교체, 이상적이었던 가정의 파멸로 상경란이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규방주체의 성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남편의 순국 직전에 국가사무로 잠시 떨어져 살았기에 이 시기의 작품은 비교적 걱정과 그리운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 순국 이후 상경란의 작품은 점차 나라의 멸망에 대한 울분, 남편을 잃은 슬픔과 끝없는 탄식이 중심을 이룬다. 심지어 자신의 50세⁶⁷⁾ 생일에 자식들이 그녀에게 축하잔치를 벌이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울분, 슬픔과 탄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시기 상경란의 작품은 오히려 여성적인 작가 이미지에서 벗어난 면을 보여줌으로써 상경란의 창작에 더 큰 자극과 발전을 가져 왔다.

명말 청초 남성 중심의 문단에서 상경란은 여성시인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독립적인 문학 시도를 진행한 본보기를 제공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문학의 추구를 결의 친족에게 보급하여 진일보로 그녀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창작집단을 건립하였다.⁶⁸⁾

이 시기 상경란의 문학창작 활동은 남편의 순국으로 멈추지 않았을 뿐더러 그

66) 石旻, 앞의 논문, p.121~124.

67) 상세한 상황 서술은 상경란의 시 「五十自敘述」에서 살펴 볼 수 있다. 祁彪佳, 앞의 책, p.272.

68) 石旻, 위의 논문, p.123.

녀를 핵심으로 가족내부의 여성을 단위로 하는 여성詩社로 발전하였다. 애초에 이 시사는 祔·商 가족내부의 여성시인들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시사 성원은 상경란, 상경란의 딸 기덕연(祁德淵), 기덕옥(祁德玉), 기덕경(祁德瓊), 기덕환(祁德宦), 며느리 장덕혜(張德蕙)와 주덕용(朱德蓉), 동생 상경휘, 상경휘의 딸이자 상경란의 조카딸인 상채(商采) 등이다. 한편 남편 생전 외임은 상경란으로 하여금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경란의 문학교육권(文化交友圈)은 가족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의 여성들과 교류하면서 문학활동의 범위를 진일보로 확대시키고 시사의 외부화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 두었는데 구체적인 교류 사례는 남편 기표가의 일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남편 순국 이후의 상경란은 가족내부의 여성을 단위로 구성된 시사로부터 그 지역 특색을 보여주는 여성시사, 심지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시사로 성장하며 큰 역할을 했다. 상경란의 시집에 등장하는 작품 제목을 보아도 상경란과 교류한 여성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와 교류한 주요 인물로 여승 谷虛가 있는데 그녀에 관한 상경란의 작품으로 「喜谷虛師住密園」, 「坐谷虛大師新居對月二絕」 등이 있다. 그 외 규숙사(閨塾師)⁶⁹⁾ 황원개(黃媛介)가 있는데 그녀에 관한 상경란의 작품으로 「題黃門夫人畫兼贈廿二太娘」, 「送別黃皆令」, 「贈閨塾師黃媛介」 등이 있고, 또 「送黃皆令往郡城」, 「喜嘉禾黃皆令過訪却贈」, 「同皆令遊寓山」 등의 작품들이 상경란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⁷⁰⁾ 그 밖에 「寄寶姑娘」이란 작품이 있는데 寶姑娘의 신분을 확정할 수 없지만 가족외부의 어느 집안 미혼 여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가족내부의 여성에 관한 작품들이다⁷¹⁾.

이 시기에 상경란은 외부여성들과도 광범한 교류를 가져 왔는가 하면 남성문인과의 교류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모기령(毛奇齡, 1623—1716)⁷²⁾과 같은 문인들과 접촉하면서 시적 예술에 대한 교류를 진행하였다.

이 시기의 상경란을 살펴봤을 때 그녀는 남편의 순국에 대하여 극단적인 죽음

69) 가정에서 규방아가씨께 글을 가르치는 여자 선생을 말한다(가정 여교사).

70) “이것은 청나라 도광(道光)황제 연간에 두후(杜煦), 두춘생(杜春生)이 수집 관각한 『祁忠惠公遺集』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李貴連, 앞의 논문 p.73.

71) 이는 “祁彪佳, 앞의 책, pp.258~274.”를 참조. 이외 가족내부의 여성에 관한 상경란의 작품으로 「與發英」, 「哭姪女」, 「代卞容寄妹」, 「代卞容闢怨」, 「代卞容怨詩」 등이 있다.

72) “모기령은 자신의 『徐都講詩集序』이라는 저서에서 상경란을 爲首인 가족여성에 대한 평가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石閔, 앞의 논문, p.123.

의 순절조치를 취하는 반면 나라와 남편을 잃은 것을 자신의 작품으로 끌어들이기에 대한 슬픔의 곡조를 표현하였다. 남편의 순국과 나라의 멸망을 경계선으로 그녀의 작품 성향이 양분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삶에서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겪으면서도 시인다운 시인의 방법으로 인생의 최후까지 창작을 이어갔다.

2. 이별에 대한 감정

이별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이별에 관한 사연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람은 일생동안 여러 가지 이별에 직면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친구와의 이별, 肉親과의 이별, 연인과의 이별 등이 있다. 이별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生離別이고 다른 하나는 死離別(永離別)이다. 이 두 가지 이별은 앞에 서술한 여러 가지 이별의 사연을 포함한다.

이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시인 내면세계의 감정을 통해 표출한 이별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별의 사연 중에서 시인이 어떤 이별로 자신의 내면세계의 감정을 표현하려 하는 것인지가 극히 중요하다. 즉 生離別이면 어떤 내면세계의 감정을 표출하고 死離別이면 어떤 내심세계의 감정을 표출하는가에 달렸다.

성낙희는 허미자의 『조선조여류시문전집』(1~4)을 기본텍스트로 삼아 조선조 여류한시 작가를 신분의 계층에 따라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계층별의 詩세계 즉 각 신분계층의 시적특성을 논의하였다.⁷³⁾ 성낙희의 연구에 따르면 신분계층은 주로 규수, 소실, 기생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 규수는 사대부가 정실부인, 정처로 개념을 잡았다. 신분에 따른 시적특성을 살펴보면 소실과 기생시인은 모두 이별에 대한 감정을 다루었지만 사대부 여성시인은 이별에 대한 감정을 크게 다룬 적이 없었다.

여성시인의 이별이라면 往往 기녀계층인 여성시인이 사모하던 임과의 이별과 떠나는 임에 대한 이별의 그리움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소실인 첩에게도 남녀 상

73) 성낙희, 「朝鮮朝 女流 漢詩의 世界- 그 身分 계층에 따른 시적 특성-」, 『아시아여성연구』 30, 아시아여성연구소, 1991, pp.191~217.

사로 유발한 이별이 있다.

필자는 이별은 소설이나 기녀계층인 여성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 여성시인에게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사대부 여성시인은 소설이나 기녀들의 작품에서 나타난 이별에 대한 감정과 달리 그녀들은 내면세계의 감정을 통해 자신의 이별을 보여주고 있다. 사대부가 여성시인 중에 이별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로 서영수합과 상경란을 들 수 있다. 그녀들의 인생 중에는 단 하나의 이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生死이별을 모두 지니고 있다. 먼저 서영수합의 이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서영수합 : 자식에 대한 그리움

서영수합의 生離別에서는 이별이 세 가지 감정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먼저 서영수합이 生離別을 통하여 표출한 첫 번째 감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難舍難分の 감정으로 別章을 이룬다.

연암 박지원은 ‘離別論’에서 “세상에 무엇이 괴롭다, 무엇이 괴롭다 해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은 生離別보다 더한 괴로움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⁷⁴⁾라고 하였다. 연암은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의 원인으로 일상적인 삶에서는 生離別을 겪어보지 못하고 다만 먼 길을 떠남으로 인한 이별을 괴로운 이별이라고 불 만하다고 하였다. 여기 먼 길을 떠난 이별이란 귀양살이, 사신행, 관직의 이동, 유배 등 공식적 행위와 관련된 生離別이므로 이별의 고통이 더욱 돋보일 수도 있다.⁷⁵⁾

難舍難分이란 차마 떨어지지 못하는 감정을 말한다. 서영수합의 難舍難分の 감정표출은 큰아들 홍석주를 사행에 보내어 쓴 별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賢母良妻의 평을 받고 있는 서영수합은 큰아들 홍석주를 나라의 공식적인 사행으로 燕京이란 먼 길을 떠나보내는 生離別을 겪은 적이 있다.

별장이란 이별의 정을 나타낸 시문이라고 한다.⁷⁶⁾ 다시 말하자면 별장은 헤어

74) 박지원, 리상호 옮김, 『열하일기』 (상), 보리출판, 2004, p.430.

75) 정우택, 「'이별'의 양상과 심미적 양식화」,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 p.26.

76)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지는 정을 내용으로 하여 지은 시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대부들 사이에 오고 간 사행별장을 보면 이별의 아쉬움보다 축하하며 德談을 보내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⁷⁷⁾ 때문에 사대부들은 늘 이별의 현상으로부터 축하하는 기쁨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여 그때마다 별장을 남기곤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청나라에 보낸 燕行使를 전송하며 쓴 연행과 관련된 별장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이나 수준에서 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것은 연행의 참가자가 조정에서 일정한 정치적인 권력이나 학문에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인물이 대부분이고, 또 이들의 연행을 전송하며 별장을 쓴 사람이라면 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별장을 쓴 사람들의 신분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상층 사대부남성들이다. 하지만 서영수합은 정통적인 별장가문 출신인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연행과 관련된 별장을 쓴 특수한 신분의 인물이 아닌가 한다. 또 그녀의 별장은 사대부들의 별장과 달리 축하보다 차마 헤어지지 못하는 감정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의 ‘연행별장’⁷⁸⁾에는 주로 큰아들 홍석주가 중국에 사신 가는 것을 배웅하면서 일어난 이별의 감정이 나타나 있다. 다음은 서영수합의 이별 감정이 연행별장에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寄長兒赴燕行中」란 작품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寄長兒赴燕行中癸亥」 큰아들이 중국에 사신 감을 배웅하면서

握手不忍別,	손잡으니 서로 이별 차마 어려워
悠悠意不窮.	아득한 생각이 끝이 없구나.
舉頭望行塵,	머리 들어 먼길길 바라보니
蕭蕭起秋風.	쓸쓸히 가을바람 일어나네.

77) 유효준 · 이태호 편,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 학교재, 2000, p6.

78) 필자가 서술한 ‘연행별장’은 이른바 조선 초기 화산(花山) 권주(權柱)의 중손가에 전해 온 『연행별장』이 아니라 연행에 관련된 별장을 가리키며 이르는 말이다. 『연행별장』이란 화산 권주가 1502년 10월에 동지중추부사에 임명,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그와 교류했던 성현, 안치, 신항 등을 비롯해 많은 전별시를 썼기에 후일 첩으로 묶어 통칭해 이르는 말이다. 또 별장이라면 자연적으로 보내는 쪽에서 예를 차려 작별할 때에 서운한 마음을 읊은 전별시를 떼어낼 수 없다. 이 두 유형의 시는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체제 상에서는 불가분리적이고 일맥상통하며 떼어낼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노직, 「화산 권주의 연행별장(燕行別章)」, 『국문학연구』 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2, pp.249~260.

送汝向何處,
燕雲三千里.
征鞭去珍重,
何用戀兒子.

너를 보내 향하는 곳 그 어디인지?
구름 너머 삼천리 중국의 연경.
나라 일로 말 달림에 집중해야 할지니
어미 마음 간절한들 어찌 말리리.

王事皆有期,
忽爲戀家鄉.
令聞日以彰,
勝似在我傍.

나라 일은 모두가 기약이 있는지라.
집 생각 어미 생각 아예 말고서
나날이 빛난다는 소식 전하여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나으렴.

涼風忽已至,
游子衣無寒.
念此勞我懷,
種種報平安.

차가운 겨울바람 벌써 닥치는데
나그네길 춥지 않게 옷차림하고
이런 생각 하느라 마음 졸리니
자주자주 잘 있는 소식 전하렴.

先聖有遺訓,
莫若敬其身.
常存履水戒,
身安德日新⁷⁹⁾.

성인들이 남긴 교훈 가슴에 새겨 두고
항상 그 몸을 소중히 하며
모든 일 조심하되 얽은 얼음 건너듯
몸은 편안코 덕은 날로 새로워라.

1803년에 서영수합의 큰아들 홍석주가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중국 연경에 사신 가는 것을 떠나보내는 정경 하에서 「큰아들이 중국에 사신 감을 배웅하면서(寄長兒赴燕行中)」라는 별장시를 지어 어머니로서의 難舍難分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첫 시작부터 難舍難分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손을 잡고 차마 떨어지지 못하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헤어지기 싫어도 공식적인 임무수행이기에 어쩔 수 없는 아쉬움, 떨어지기 싫은 애절함을 노래하고 있다. 멀리로 가는 사행길을 바라보며 가을바람이 마음속까지 쓸쓸하게 불어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곳, 구름처럼 멀리 떨어진 연경 땅이다. 먼 길을 떠나는 것은 나라의 要事와 임무수행이기에 賢母로서 당연히 말리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일이니 기약이 있으므로 집 생각, 어머니인 서영수합을 생각지 말라고 한다. 이 부분은 자식한테 한 말이지만 반대로 서영수합이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다. 즉 아들은 공식적인 임무수행이니 기약대로 돌아올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암시다. 걱정, 근심스러운 마음에 難舍難分의 지경이지만 어쩔 수 없이 헤

79) 허미자, 앞의 책, p.333.

어졌으므로 자신을 잘 챙기며 수시로 편안하다는 소식을 어머니한테 전하기를 바란다. 성인의 훈계를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 두며 늘 경계로 삼아 자신의 덕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훈계이다.

시의 내용을 분석하고 나니 위의 연암 박지원이 말한 것처럼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큰아들 홍석주의 공식적인 사행으로, 먼 길을 떠나 연경까지 보내야 하는 서영수합의 難舍難分의 감정으로 유발된 生離別이다. 또 여성들의 보편적인 이별을 벗어나 서영수합 자신만이 갖고 있는 '연행별장'을 볼 수 있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사행에 나선 정치계나 문학적 인사들에 대한 이별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여성의 신분으로 등장하여 연행별장을 남긴 자체가 특이해 보인다. 공식적으로 연행을 떠나 남겨진 기록문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별장시로는 최초의 시가 아닐까 하여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일일 듯하다.

② 괴로운 이별

위의 '離別論'을 이어 연암 박지원은 또 “이별의 괴로움에는 ‘곳’과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암 박지원이 주장한 ‘곳’이라면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유독 물길로 중국을 갈 때”가 가장 괴로운 이별이 아닐까 한다. ‘때’는 또 그 괴로운 이별을 당한 시기를 ‘때’라고 하였다.⁸⁰⁾ 이런 상황의 이별로 인한 괴로운 감정은 ‘떠나는 자’와 ‘보내는 자’들에게 동시에 존재한다. ‘떠나는 자’는 異國땅에서의 思鄉의 정서와 思親의 감정이 더 선명하므로 고향과의 이별, 친인들과의 이별은 모두 그리움으로 넘쳐 괴로운 정서를 나타내고 ‘보내는 자’는 ‘떠나는 자’를 보낸 후 오래도록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만날 수 없는 그 괴로운 감정으로 인한 이별을 나타낸다. 필자는 여기서 ‘보내는 자’의 괴로운 감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떠나는 자’는 대부분 글을 아는 지식인으로 쉽게 그 괴로운 감정을 토로할 수 있지만 ‘보내는 자’는 늘 대부분 상층 여성이지만 그 괴로운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여성은 극히 적었기에 서영수합은 자신의 큰아들 홍석주의 사행 길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보내는 자’의 역을 맡은 사대부 여성시인으로서 특별하다. 아래 서영수합의 이별로 인한 괴로운 감정을 노래하는 「長兒失期不來次

80) 처음 박지원의 '離別論'에 대하여 주장한 것은 “정우택, 앞의 논문, p.26.”에서 서술한 것이므로 필자는 이 부분의 내용을 “박지원 씌, 리상호 옮김, 앞의 책 pp.428~435.”와 “유호준·이태호, 앞의 책, p.6.”을 참조.

杜韻寄時悵望之懷」을 살펴보기로 하자.

「長兒失期不來次杜韻寄時悵望之懷」 만아들이 기약대로 오지 않으므로, 두보의 시에 차운하여 섭섭한 심정을 부쳐서 나타냄

歸來何太晚,
空負菊花期.
短髮倚闥處,
旅天落木時.

돌아오는 것이 어찌 그리도 더디냐?
부질없이 국화 피는 시기를 어겨 버렸구나!
짧은 머리로 동구 밖에 나가니
길 떠나던 나뭇잎 지는 때였다.

慈鳥喚雛急,
乳鳥返巢遲.
遙望城雲暮,
何爲久在茲⁸¹⁾.

어미 까마귀는 제 새끼를 급히 부르는데
어린 새끼는 둥지에 돌아옴이 늦기만 한고?
아득히 성벽의 구름 저무는 걸 바라보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서 있을 것이라?⁸²⁾

앞의 「寄長兒赴燕行中(큰아들이 중국에 사신 감을 배웅하면서)」란 작품에서의 내용을 이어 서영수합은 공식적인 사행은 당연히 약정된 시간이 있으므로 難舍難分의 감정 아래서도 늘 바라는 바가 있다고 본다. 즉 아들은 꼭 그 기약대로 돌아올 것으로 굳게 믿고 손꼽아 기다린다. 하지만 서영수합이 바라는 큰아들 홍석주는 기약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기에 그녀의 불안함과 그리움을 초래하였고 그 이별의 감정은 더욱 큰 괴로움을 자아내고 있다.

작품의 첫 句부터 서영수합은, 왜 약정된 기간인데 돌아오지 않는가, 왜 이리도 늦은가를 외우며 오래도록 이별한 어머니의 괴로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句에서는 첫 句에서 서영수합이 무엇 때문에 큰아들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즐랐는지를 알 수 있다. 사행은 다 약정이 있으므로 본래 기약대로 계산하면 국화꽃이 핀 계절인 가을 무렵에 돌아와야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버렸기에 그녀는 보고 싶은 사람을 제때에 볼 수 없는 이런 괴로움의 감정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셋째 句와 넷째 句는 역시 기약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기에 더없이 괴롭고 섭섭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뒷부분에 와서는 자신과 아들 홍석주를 “어미 까마귀”와 “어린 새끼”로

81) 허미자, 앞의 책, p.373.

82) 김지용, 『한국의 女流漢詩』, 여강출판사, 1991, p.277.

비유하면서 아들 홍석주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원망半, 걱정半을 섞어가면서 기약을 앞두고도 만날 수 없는 괴로운 이별의 감정을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두 句는 홍석주가 언제 올 것인가를 손꼽아 기다리는 어머니의 괴로운 감정을 절절하게 표출하였다.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보면 서영수함은 기약대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노래하는 동시에 이런 이별이 참 괴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③ 그리움과 이별

수많은 이별 중에 그리움을 근원으로 한 이별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설이나 기녀계층인 여성시인에게는 가장 두드러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그리움은 다만 사모하던 임과 헤어진 것, 떠나는 임에 대한 이별의 그리움일 뿐이다. 사대부 여성인 서영수함은 임 이외의 사람을 인물로 그리움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그 대상은 바로 자식이다.

「次季兒寄示韻」⁸³⁾

막내아들이 보내 온 시에 차운함

夢入芝蘭室,
還疑玉樹傍.
流雲行不息,
白髮意逾忙.

꿈에 지란(芝蘭)이 핀 방에 들어갔더니
또한 옥수(玉樹)의 곁인가 의심했더라.
흐르는 구름 가며 쉬지 않고
백발의 마음속은 점점 급하네.

老木風生響,
寒星雪有光.
不嫌久離別,
唯願慎行藏.

늙은 나무라 바람에 울어대고
차가운 별이라 눈빛을 더하네.
오래 이별함을 꺼리지 않노니
오로지 행장(行藏)을 삼가기 바랄 뿐.

戀爾還無寐,
靑燈永夜焚.
徘徊瞻北極,

너를 그리다 또한 잠을 못 이루고
파란 등불 긴긴 밤을 새워 버린다.
배회하며 북극성 쳐다보고는

83) 이 번역을 “김지용, 『한국의 女流漢詩』, 여강출판사, 1991, p.259.”의 번역을 위주로 참고하였는데 마지막 시구중의 ‘報君’을 임금께 보답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여겨져 필자가 번역을 수정하였다. 또 기존 金呂珠의 논문에는 ‘報君’은 임금의 은혜로 번역하였다. 때문에 이 부분을 응당 임금의 신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임금으로 보겠다.

惻悵望南雲.

애달프게 남녘 구름 바라보는구나.

野店鷄聲亂,

들녘 저자엔 닭소리 요란하고

官樓角語分.

관아(官衙)에선 새벽인사 나누는구나.

慇懃書數紙,

은근히 몇 글자 적어 보내니

努力報吾君⁸⁴⁾.

힘써 임금님께 보답하여라.

서영수합의 일생에 아들 3명과 딸 2명이 있었다. 그런데 자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작품에서 큰아들 홍석주와 막내아들인 홍현주⁸⁵⁾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두 아들이 당시에 높은 관직에 있었으므로 타지로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느라 그녀와는 聚少離多의 상황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이다. 또 이 두 아들을 놓고 보면 서영수합의 시작품에서 막내아들 홍현주를 엮은 차수가 큰아들보다 더 많은 것은 홍현주는 정조의 딸인 淑善翁主의 남편이기에 가문에 더욱 큰 영광을 안겨주고 정조의 부마이므로 당연히 그녀와의 이별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위의 시는 막내아들 홍현주가 보내 온 시를 보고 그리움 끝에 詩를 차운하여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다.

첫 부분은 막내아들 홍현주의 방에 들어가 보고는 마치 곁에 있는 듯이 홍현주를 밤낮으로 日思夜想 그리워했기에 꿈속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꿈의 상황은 현실상황과 대조되어 이별로 인한 그리움의 감정을 노출하였다. 또 첫 두 句에는 芝蘭玉樹란 고사가 인용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준말로 남의 집안의 우수한 자제를 예찬하는 말이다. 『世說新語』 「言語」에, 晉나라 謝安이 여러 자제들에게 어떤 자제가 되고 싶냐고 묻자, 그의 조카인 謝玄이 대답하기를 “비유하자면 지란옥수가 뜰 안에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라 하였다. 작품에서도 본래의 뜻과 일맥상통하므로 詩를 해석해 보면 홍현주는 홍씨 가문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기에 더 자랑스럽고 돈독하고 고상한 품성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늘 떨어져 살아야 하는 현실에 그리움이 더욱 커갔

84) 허미자, 앞의 책, p.363.

85) 홍현주 : 자는 세숙(世叔), 호는 해거재(海居齋)·약헌(約軒). 아버지는 인모(仁謨)이며, 우의정 석주(奭周)의 아우이다. 정조의 사위이다. 정조의 둘째딸 숙선옹주(淑善翁主)와 혼인하여 영명위(永明尉)에 봉하여졌다. 1815년(순조 15) 지돈녕부사가 되었다. 문장에 뛰어나 당대에 명성을 떨쳤다. 저서로는 『해거시집』이 있다.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다. 마음 같아서는 흐르는 구름처럼 쉬지 않고 보러 가고 싶지만 자신이 백발인 늙은이가 되어 능력이 부족하여 마음만 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을 ‘늙은 나무’에 비유하였고, ‘바람에 울어대다’는 자식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심경을 울음으로 대신해 말한 것이며, 이런 분위기가 한층 쓸쓸함을 더 보태고 있지만 자식한테는 오랜 이별도 꺼리지 않을 것이니 자신의 처신과 몸가짐을 삼가기를 바라는 것이 어미의 당부이다. 여기에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몇몇한 선비로 세우고 싶어 하는 양면의 모정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다.⁸⁶⁾ 서영수합은 자신을 ‘늙은 나무’에 비유하였는데 당시 서영수합의 정확한 나이를 모르지만 대체적인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서영수합은 남편 만년에 시우가 되어 시를 쓰기 시작하였고 또 남편은 1812년에 돌아간 것으로 보면 이 작품은 응당 그 전에 지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유일하게 명확한 연도를 알 수 있는 작품은 큰아들 홍석주를 배웅하는 내용의 작품인데 그때 당시는 1803년이고 서영수합의 나이는 50대 초반이었다. 만약 1803년 이전에 지었다면 자신을 ‘늙은 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빨라도 1803년 전에 지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서영수합이 이 시를 지었을 때의 나이는 대체적으로 50부터 59세 사이, 즉 1803년부터 1812년 사이이다.

이 부분에서는 서영수합이 아들을 그리다가 잠들 수 없어 등불 아래서 긴 밤을 새우는 것을 노래하였다. 북극성의 사전적 의미는 제왕의 상징이고 대궐을 가리키기도 하므로 이 부분의 북극은 대궐에 있는 아들로 볼 수 있다. 즉 아들이 있는 위치를 쳐다보면서 남쪽에 있는 자신의 애달픈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그리는 어미로서 몇 글자를 적어 보내며 자신의 심경을 알렸다. 또 현모로서 아들에게 당부한 것은 임금에게는 충신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소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2) 상경란 : 남편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

상경란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녀의 일생에는 生離別이 크게 자리잡고 있지는 않다. 다만 남편의 직무 때문에 이뤄진 어쩔 수 없는 生離別과 친구가 타지로 떠난게 원인으로 작용한 生離別의 두 가지 감정을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다. 다음에

86) 김려주, 앞의 논문, p.203.

서 상경란의 生離別에 대한 감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남편과의 생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걱정

상경란과 남편 기표가의 혼인생활의 대부분 시간은 서로 의지해 가면서 지내왔다. 심지어 남편 기표가는 집을 떠나 외임할 때도 상경란은 늘 남편을 따라 수행에 나섰다. 하지만 明末은 多事之秋의 시기로 기표가는 멸망 청조에 처한 명나라에 힘을 보태느라 사무가 더없이 분주해져 상경란으로 하여금 夫君과의 이별의 괴로움을 느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祁氏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리움과 걱정에 휩싸인 감정을 갖게 된 것이 있다.

「夜雨」

밤비

雨過玉階芳草綠,
美人夢渡交河北。
交河萬里何處尋,
夢伴歸鴻沙草宿⁸⁷⁾。

비 내린 후 옥계에 방초는 푸르네
미인이 꿈에 교하 북쪽을 건너네.
만리 교하를 어디에서 찾을고?
꿈에 돌아가는 기러기와 함께 모래밭에서 자네.

당시 여성의 생활내용, 교제범위, 나아가서 행적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정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원인으로 여성문학 작품은 남성문인의 창작에 비하여 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의식이나 작품에서 시간을 숨기려는 실마리가 별로 강하지 않다. 여성시인은 다만 가까운 사람을 보내거나 어떤 중대한 사건에 봉착했을 경우 시간에 관한 언급을 작품 속에 제시하곤 한다. 상경란의 詩集을 살펴보면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작품도 시간 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므로 시작품의 구체적인 시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작품의 창작 시간을 따져보면 명나라가 멸망되기 직전, 곧 남편 祁彪佳가 순국하기 전이다. 그러므로 상경란이 지은 이 詩는 약 1644년~1645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남편이 순국하기 전에 淸兵은 中原지대에 대하여 虎視眈眈하는데 弘光 조정은 강남에 치우쳐 있으면서 조정의 내부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내우외환의 시각에 상경란은 남편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여러 차례 남편에게 사직하라고 설득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淸나라의 군대가 南下하는 위태로운 상황 하에 남편은 순국의 길을 택하였다. 남편의 순국

87) 祁彪佳, 앞의 책, 1960, p.260.

직전에 한동안 상경란은 남편과 떨어져 살아 그리움의 감정이 강해지며 국난 상황에 남편의 처신을 걱정하는 감정으로 창작하였다.

상경란과 같은 계층인 사대부 여성시인들을 살펴보면 남편과 헤어지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사라고 볼 수 있지만 상경란에게는 이전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비로소 처음 겪는 남편과의 이별 상황에서 그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그리움과 걱정의 심정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② 친구와의 생이별에 따른 아쉬운 감정

중국에는 ‘天下無不散的筵席(천하무불산적연석)’이란 속담이 있다. 원문의 글자대로 해석하면 ‘천하에는 헤어지지 않는 연회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글자의 해석을 벗어나면 이 속담의 은유적인 의미는 ‘천하의 도리는 사람들은 만났다가 꼭 헤어지기 마련이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사람이 라면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도 있기 마련이다.

상경란의 일생에는 남편 기표가 외, 자신의 성향과 같은 여성 벗과의 生離別도 살펴 볼 수 있다. 상경란은 상층 사대부가 여성이지만 하층계급인 규속사 황원개와도 교유했다. 두 사람은 신분적 공간의 제한을 벗어나 새로운 여성사회 공간, 나아가서 여성문학 공간을 만들었다. 황원개는 또 상경란 이외의 祁氏가족의 여성과 교유하면서 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⁸⁸⁾ 이처럼 상경란과 황원개는 志向도 같고 마음도 맞는 친구였기에 황원개가 타지로 떠나게 되자 이를 아쉬워하며 이별에 대한 감정을 시작으로 보여주었다.

「送別黃皆令」

황개령을 배웅하며

徵調起驪歌,
悲風繞坐發。
人生百歲中,
強半苦離別。

징발은 이별의 노래⁸⁹⁾를 울리며
슬픈 바람을 둘러싸고 앉더니
인생의 백세 속에는
괴로운 이별은 반이 넘는구나.

88) 황원개와 상경란(初面은 1654년)을 비롯한 기씨 여성들과의 창화는 약 청나라 순치(順治) 14년 즉 1657년으로 추정되었다. 李貴連, 앞의 논문 p.51.

89) 驪歌(여가) : 이별의 노래를 말한다. 고대(古代)에 고별할 때 불렀던 여구(驪駒)라는 시편(詩篇)이 있던 데에서 기인한다.

念君客會稽，
釜不因人熱。
茲唱歸去辭，
佩環攜皎月。

그리운 그대가 회계⁹⁰)에 방문하고
술은 사람에 의해 뜨거워진 것은 아니다
이에 歸去來辭⁹¹)를 부르니
고리옥⁹²)은 밝은 달을 데리고 가네.

執觴指河梁，
愁腸九回折。
流雲思故島，
倦禽厲歸翻。
一作(鼯鼠懷故穴。)

잔을 들고 하수의 다리를 가리키고
시름하는 창자가 아홉 번이나 굽이돌더니
흐르는 구름은 옛 섬을 그리워하며
고단한 날짐승의 깃족은 돌아올 때 세차네.
날다람쥐는 옛 동굴을 그리워하네.

帆檣日以遠，
膠漆日以闊。
一作(山川日以越。)
同調自此分，
一作(索居寡闌臭，)
誰當和白雪。

돛대는 날로 멀어지지만
우정⁹³)은 날로 광활해지네
산천은 날로 넘어가네
동조⁹⁴)는 이쯤에서 헤어지자니
삭거⁹⁵)는 나의 나쁜 소문을 막더니
누가 백설과 함께 하던가

交深多遠懷，
憂來不可絕。
佇立望滄波，
相思煙露結⁹⁶)。

우정이 깊으면 멀어도 그림고
걱정이 끊이지 않네.
우두커니 서서 창파를 바라보면
상사의 안개속에 이슬이 맺히네.

상경란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시사는 남편이 순국한 이후에도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나아가 가족 밖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규속사인 황원개는 이 시기에 교류한 주요 대상이다. 이런 교류를 통해 상경란은 지식의 시야를 확대하게 되었다.

90) 會稽(회계) : 浙江省 회계는 商景蘭의 고향이다.

91) 歸去辭(귀거사) :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가리킨다.

92) 佩環(패환) : 장식으로 차는 고리옥.

93) 膠漆(교칠) : 부레풀과 옷나무의 칠처럼 불가분(不可分)의 긴밀한 관계를 뜻하는 말인데, 보통 교분이 두터운 우정을 가리킬 때 쓴다.

94) 同調(동조) : 취향이 서로 같은 사람을 말한다.

95) 離群索居(리군삭거) : 친지나 벗들과 헤어져서 혼자 외로이 사는 생활을 가리키는 말이다. 『禮記 檀弓 上』

96) 祁彪佳, 앞의 책, p.274.

시의 시작부터 이별의 곡조를 울리며 벗이 타지로 떠나는 것을 슬퍼하며 인생에는 괴로운 이별이 절반을 넘는다고 탄식하였다. 그러면서 벗인 황개령에게 명나라의 회복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어서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고 潔身하고 은둔하게 되었다는 것을 도연명의 歸去來辭로 암시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와 同流合一할 수 없는 것을 자신과의 선을 그으면서 노래하고 있다. 그렇지만 명나라에 대한 의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신과 나라의 처지에 대하여 안타까움은 발로하지만 힘을 실어주는 것은 힘든 것으로 서술하였다. 또 자신과 벗인 황개령은 明에 대한 회복의식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도 우정이 깊어서 그리워하고 걱정하면서 잊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③ 남편과의 사별로 인한 아픔

상경란과 남편의 혼인은 늘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만남이라고 평가하게 만들었다. 淸나라 시인 袁枚⁹⁷⁾, 朱彝尊⁹⁸⁾은 모두 자신의 詩話에서 祁氏 부부를 금동옥녀(金童玉女)의 안목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봉건사회에서 여성자신이 마음에 담고 있어, 인생을 함께하려는 남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이것은 이 시기의 여성이 남편에 대한 자주적인 선택권을 갖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을 찾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상경란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남편 祁彪佳를 만났으므로 운명적인 만남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모두 명문사대부가 출신이고, 문학 방면에 남보다 뛰어난 소질을 갖추고 있어 서로 통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았다. 물론 그들은 詩文에 능한 부부였지만 현존한 작품에는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작품은 없다. 그렇다 하여도 통할 수 있는 기초가 구비 되었기에 행복한 부부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⁹⁹⁾ 또 남편 기표가는 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였으므로 그녀 이

97) 袁枚(원매, 1716~1797) : 원매는 청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산문가이다. 그의 『隨園詩話補遺』에서 祁氏부부에 대한 평가가 다음과 같이 적어져 있다. 『隨園詩話補遺』 卷五中記道: “前朝山陰祁忠敏公彪佳, 少年美姿容, 夫人亦有國色, 一時稱爲金童玉女之目.” 石旻, 앞의 논문, p.119.

98) 朱彝尊(주이존, 1629~1709) : 주이존은 청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자 詞人이고 학자이며 藏書家이다. 그의 시화 『靜志居詩話』에는 祁氏부부에 대한 평가가 다음과 같이 적어져 있었다. 『靜志居詩話』 卷二十中記道: “祁公美風采, 夫人商亦有令儀, 閨門唱隨, 乡党有金童玉女之目.” 卷二十三中又道: “祁商作配, 鄉里有金童玉女之目.” 石旻, 위의 논문, p.119.

99) 石旻(2001), 앞의 논문, p.120.

외에 따로 첩을 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 부부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경란은 혼인 후 3남 4녀를 배출하고 남편의 순국 직전인 1641년에도 유산된 것을 보면 부부 간에 늘 행복한 생활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25년 만에 남편의 순국으로 깨졌다. 1645년 남경이 함락되고 蘇州, 杭州가 청군의 공략을 받자 남편 기표가는 단식하고 물에 뛰어들어 순국하였다.

이로 인해 상경란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이별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국가의 멸망, 남편의 순국은 연이어 그녀한테 극심한 충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상경란은 이런 고통과 충격을 짧고 굵은 시로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새로운 悲歌를 아로새길 수 있었다. 다음에 분석하려는 시는 상경란의 작품 성향이 전변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여성이지만 점차 자의식이 강화되어 나라 일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만약 이런 나라의 교체를 겪지 않았더라면 상경란은 그냥 규방소재로 창작된 시 작품 몇 수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경란에게 있어 망국, 이상적인 가정의 파멸은 그녀의 시풍 변화의 관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 烈士의 아내로서 상경란의 언행은 필연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에 나타난 상경란의 감정적 정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공적인 정서¹⁰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悼亡」

세상 떠난 남편을 애도함

其一

公自成千古,
吾猶戀一生.
君臣原大節,
兒女亦人情.
折檻生前事,

공은 천고의 객이 되었으나
나는 일생을 사모한다오
군신이 원래 큰 절조이지만
자녀들 또한 사람의 정분이라오
난간을 꺾은¹⁰¹⁾ 건 생전의 일이요

100) 공적인 정서 : 규범적이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감정을 말한다.

101) 折檻(절함) : 직간(直諫)을 이르는 말. 漢의 朱雲이 成帝 앞에서 간신 張禹를 베어 죽여야 한다며 검을 내려달라고 주청하니, 성제가 격노하여 주운을 끌어내어 斬首하라고 명하자, 끝까지 항변하며 난간을 부여 잡아 부러뜨렸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뒤에 성제가 부러진 난간을 그대로 두어 직간하는 신하의 충절을 기렸다. 후대에 正殿 중앙의 한 칸은 일부러 난간을 두지 않고 折檻이라 하

遺碑死後名。
存亡雖異路，
貞白本相成。

비석을 남긴 건 사후의 명예라네
비록 생사를 달리했건만
정절과 청렴함을 이루었네.

其二

鳳凰何處散？
琴斷楚江聲。
自古悲荀息，
於今弔屈平。
皂囊百歲恨，
青簡一朝名。
碧血終難化，
長號擬墮城¹⁰⁵⁾。

봉황은 어디로 흩어졌는가
거문고에 초강(굴원)의 소리 끊어졌네
예로부터 순식¹⁰²⁾을 슬퍼하고
지금까지 굴원을 애도하네
상주문은 백세의 한이고
역사서¹⁰³⁾는 한 왕조의 이름이네
벽혈¹⁰⁴⁾은 끝내 변화시키기 어려우니
큰 통곡에 성이 무너지려 하네.

남편 기표가의 죽음은 상경란이 맞이한 두 번째 死離別¹⁰⁶⁾이었다. 1636년에 祁氏 부부의 아래서 태어난 첫 자식인 기동손(祁同孫)이 일찍 졸하였다.¹⁰⁷⁾ 그 때도 슬펐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일생의 짝을 잃은 것보다 슬펐겠는가? 1645년 6월 남편 기표가는 단식 후 물에 뛰어들어 순국하였다. 위의 시는 바로 이 때 지은 것이다.

其一은 상경란 자신의 생과 남편의 死의 갈림길에서 상경란은 남편의 순국을 담담한 어조로 칭송하고 있다. 남편은 임금의 신하로서 변하지 않은 충성과 절조를 지킴으로써 그 도리를 다했기에 그림지만 슬퍼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강하게 엿보인다. 또한 자신은 가정과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남편 순국 후 그녀는 남편의 뒤를 이어 죽음으로 남편에 대한 순

였다.

102) 荀息(순식) : 춘추시대晉나라 사람. 자는 叔. 大夫. 虞나라에게 길을 빌려 驍(號)나라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를 멸망시키는 계책을 냈다. 獻公이 죽고 태자 奚齊가 살해되자 驍(號)나라를 옹립하였으나 驍(號)나라가 살해되면서 그도 죽었다. 『左傳, 僖公2·9·10年』

103) 青簡(청간) : 글씨를 쓰는 데 사용하는 대쪽. 역사, 또는 역사책, 서적을 두루 이르기에도 한다.

104) 碧血(벽혈) : 충신이나 열사가 흘린 피를 이르는 말.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을 이르는 말.

105) 祁彪佳, 앞의 책, 1960, pp.260~261.

106) 두 번째 이별이란 : 상경란의 남편을 위주로 한 가족 단위를 말한다.

107) 祁同孫(기동손, 1621~1636)은 祁氏 부부 아래서 태어난 첫 아들이니 16살 되던 해에 천연두[天花]란 병으로 일찍 졸하였다. 祁彪佳, 앞의 책, p.254.

절을 택한 것이 아니라 생으로 가정과 자식을 지켜내려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었다. 비록 두 사람의 생사는 달라졌지만 나라를 위하는 것과 집안을 위하는 것은 모두 상부상조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함은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其二의 첫 구 “봉황은 어디로 흩어졌는가?”는 약간 원망투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입과 헤어진 아픔에 대한 감탄이기도 하다. 상경란의 이 詩作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다른 여성시인의 悼亡詩에 비해 어조나 감정몰입에 약간의 조심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 봉황은 은유의 특성을 띠고 있다. 봉황이란 전설상에서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인데 수컷은 봉, 암컷은 황이라 한다. 봉황은 쌍으로 이루어진 것¹⁰⁸⁾인데, 시구에서는 쌍으로 이루어진 봉황의 흩어지는 상태를 노래함으로써 상경란 자신과 남편 기표가의 生과 死의 이별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구는 상경란 자신과 남편 기표가가 生死로 갈라진 것에 대하여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짝을 잃은 슬픔을 적절하게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시구를 나라의 멸망을 한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봉과 황의 흩어짐을 국가와 나의 이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구를 뒤로 이어가면서 荀息과 屈原의 전고를 사용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또 한번 남편의 충성과 대의에 주목시키는 동시에 남편의 순국을 높이 찬양하였다. 결국 상경란은 남편과의 死이별 후 짝고 굶은 도망시로 그녀의 슬픔과 大義를 정확히 나타냄으로써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여성시인으로서 후반생 시작품의 성향을 전변시키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3. 여성시인으로서의 자의식

1) 서영수합 : 윤리와 욕망의 조화 추구

문학이 인생의 반영이라면 무엇보다 작품의 내적 골격을 이루는 사상과 정서의 총체로서의 의식의 흐름을 탐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¹⁰⁹⁾ 서영수합 인생

108)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109) 성낙희, 「韓國 古代詩歌의 女性意識」, 『아시아여성연구』 39,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0, p.8.

도 문학적으로 반영되어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다. 그런데 서영수합의 詩作과 인생은 잘 조화를 이루었다기보다는 상호 모순적인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학 행위에 대한 서영수합의 의식 있는 행동은 구체적 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그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윤리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자의식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의식은 신체적 특징, 사회적 존재로서의 남과의 관계, 종교적 세계와의 관계 따위의 모든 외적인 관계를 벗어나 직접적인 성찰에 의하여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적 세계에 대하여 아는 일이다.¹¹⁰⁾

여기서는 서영수합이 출가 후 남편의 시우가 되면서 어떤 모순적인 자의식을 보여주었는지를 보기로 하겠다. 이 시기의 서영수합은 이미 어린 시절에 받았던 교육의 영향이 일정한 변화를 거쳐 이미 자신만의 자의식 체계를 형성하였다. 때문에 필자는 서영수합이 출가 후의 십년 동안과 남편의 말년에 시우로 詩作하게 되는 동안을 주요한 시기로 다루기로 한다. 이 시기 서영수합은 외적인 변화, 유교사상의 영향력, 그녀 자신의 가슴속에 품은 욕망, 가장 간절했던 것들이 상호 마찰되면서 일정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영수합이 출가한 뒤 십년 동안의 삶을 살펴보겠다. 14세 흥인모의 부인이 된 서영수합은 이미 자신이 유교적 사상에 충실한 사대부가 여성이라는 자의식 체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출가 후의 십년 동안 시가식구들은 누구도 그녀가 글을 아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십년 동안 그녀는 아무런 시작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또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자신에게 마땅한 윤리 규제를 주장하는 자의식을 강조하였다.

다음 서영수합이 남편 흥인모의 시우가 된 모순적인 자의식을 살펴보겠다. 이 시기의 서영수합은 출가 후 처음으로 문학을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남편은 말년에 화답할 사람이 없었기에 부인인 서영수합에게 시우가 되어달라고 강권하였다. 하지만 이런 남편의 강권은 오히려 그녀가 시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고 어릴 때 품었던 시작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었다. 때문에 이 시기의 서영수합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유교적인 자의식을 가진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내부적인 심리 변화를 자신조차 허락할 수 없으면서도 오랫동안 숨겨둔 욕망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므로 서영수합은 모순

110)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보기에 합당한 이유는 바로 유교 윤리를 지키면서 詩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영수합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평계와 계기로 작용하게 되어 외적인 것(남편)과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리화를 시켰지만 결론적으로 모두 외적인 간섭과 유교적 사상의 영향보다 그녀 자신의 자의식이 더 크게 결정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시기의 자의식 변화는 그녀 자신의 심리적인 변화와 어떤 방향을 더 지향하는지에 달렸던 것으로 봐야 한다.

그 지향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서영수합의 관점에서 시를 지으면서 직접 필사하지 않은 것은 유교적 윤리의 범도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앞부분에서 서영수합의 아버지인 서형수가 그녀의 문학적 재질을 높이 찬양한 것을 보면 출가 전부터 서영수합은 문학적인 재질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창작 시기에 자신이 독창적인 시작을 하는 대신 타인의 운을 빌리거나 화답하는 시를 지었다. 이것은 서영수합이 사대부가 여성으로서의 윤리 규범적인 자의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타인의 운을 빌거나 화답하는 것을 단순한 모방작이 아닌 창작이라 생각하여 양자를 조화롭게 결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밝혔듯이 “영수합의 시 가운데 중국시인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 많았던 까닭은 그가 學詩의 대상과 그 영역을 폭넓게 학습하였기 때문이었다.”¹¹¹⁾ 서영수합이 중국시인의 시를 차운하거나 화답한 것은 일반적으로 평가한 것마냥 단순히 원작을 모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시를 배움에 있어 대상과 그 분야를 폭넓게 학습하려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대부가 여성인 신분을 고려해서 표면적으로 유교 윤리의 범도에 어긋나지 않은 작품을 지으려한 것도 있다. 기존 강성위의 연구에 의하면 차운시는 “곧 상대방에 대한 예우나 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동의 내지는 존중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¹¹²⁾고 한다. 그렇다면 서영수합이 두보의 시를 차운한 것도 ‘詩聖’ 두보에 대한 예우나 두보의 선택에 대한 동의 내지는 존중의 뜻으로 보는 것도 마땅하다. 서영수합이 살았던 시대의 전반을 더불어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은 學唐인가 學宋인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것을 알 수 있다. 학당에 열중한 지식인들은 당연히 당나라 시인에 대한 존숭이 크므로 이 영향을 받은 서영수합이 여성

111) 이정화, 「서영수합의 시의 풍격 연구-次韻詩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p.46.

112) 강성위, 「和韻詩의 類型과 特性考」, 『중국문학』 30집, 한국중국어학회, 1998, p.179.

으로서 이국 남성의 작품에 유독 사랑을 느끼고 작품을 차운할 의향이 있었던 것은 그 시인에 대한 공감과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대가의 작품을 차운한 것은 명분으로 따지면 유교 윤리 규범을 어기지 않으려고 운을 따라 쓰거나 화답한 것이지만 서영수합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보면 그녀가 타인의 운을 빌리거나 화답한 것은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서영수합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시에 대한 욕망인 것 같다. 홍석주의 행장에 의하면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도연명을 비롯한 大家들의 시를 즐겨 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자신도 이런 수준의 시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가라 하여 대가의 작품을 쉽게 차운할 수 있거나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서영수합이 두보의 시에 대해 화답한 것을 보기로 하자.

「和杜初月」

두보의 ‘초월’에 화답함

羈鳥棲未定,
難爲一枝安。
林月初生影,
絳絳掛雲端。

철새는 보금자리를 정하지 못해
어느 한 나뭇가지에도 쉬지를 못하네.
숲 사이 초생달 그림자 지면서
구름 끝에 가늘게 비끼어 걸리었네.

流光入懷袖,
中宵覺微寒。
遠客愁夕永,
坐看松陰團。¹¹³⁾

흐르는 달빛이 소매 속에 들어가니
한밤중이라 가벼운 추위를 느끼네.
길손의 시름은 밤으로 더 길어서
앉아서 바라보니 소나무 둥글게 그림자지네.

위의 시는 두보의 시에 화답한 작품이다. 이 화운시는 차운시의 양식과 달리 타인의 시와唱和할 때 그 시의 운을 따르거나 그 운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짓는 것을 말한다. 즉 몇 가지 방식으로 원시인과의 운을 공유하는 것이다. 강성위는 화운시의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詩나 詩人の 詩에 和韻함으로써 그 詩, 혹은 그 詩人에 대한 흥미의 정도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蘇軾과 같은 사람은 陶淵明의 詩에 일일이 和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和韻은 同時代의 사람뿐만 아니라 過去의 사람과도 交通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113) 허미자, 앞의 책, pp.334~335.

터주는 것이다.”¹¹⁴⁾ 이를 통해 서영수합도 남편의 추천으로 당윽시를 읽으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시인인 두보의 시에 화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영수합과 두보의 시대적 간격이 크지만 ‘과거’의 시인의 작품에 화답할 수 있기에 단순히 모방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遊戱性이다. 남성들이 詩를 짓는 목적은 과거에 응시하는 수단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여성들이 시를 짓는 목적은 비교적 단순하다. 그녀들은 스스로 시를 지어 즐기거나 마음속의 욕망을 시로 담아내어 풀거나 자발적으로 시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서영수합이 시를 쓴 것은 ‘功’과 ‘利’를 벗어나 마음속으로 즐겨 나오는 언어와 문자를 생활 속에서 일종의 유희성으로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詩道의 계승이다. 예로부터 화운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화운시는 原詩人과 같은 운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창작이 아니라 타인의 운을 빌려 타인의 시에 화답한 것으로 보기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화운시가 고전시가 문학의 창작 전통이 완료되는 시점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¹¹⁵⁾ 화운시의 기나긴 창작적 생명력은 단순히 타인의 운을 빌려 화답한다고만 말하기에는 부적합함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서영수합의 화답은 중국시인의 풍격을 이어받아 시를 배워 修鍊하는 일종의 시도 계승이고 자신을 유교 윤리의 법도에서 합리화하려는 일종의 수단이자 어릴 때 품었던 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 것이지 타인의 운을 따라 화답하는 단순 모방을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영수합은 대가들의 시작품, 집안 식구의 시작품을 차운이나 화운하는 방식으로 타인이 유교 윤리 법도에 어긋난다고 할지 모르는 상황을 자신의 방식으로 합리화시켰다.

두보 외에도 서영수합의 시작품에는 중국대가들의 시를 차운 또는 화운한 작품들이 여럿 있다. 구체적으로는 王維, 李白, 陸遊, 陶淵明, 賈島, 孟浩然, 蘇軾 등이다. 두보를 포함하여 서영수합이 차운하거나 화운한 중국대가는 모두 8명이었다. 그들을 차운하거나 화운한 횟수를 살펴보면 두보 27차례, 왕유 9차례, 이백 5차례, 육유 4차례, 도연명 3차례, 가도 2차례, 맹호연 2차례, 소식 1차례이다. 구체적인 작품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114) 강성위, 앞의 논문, p.175.

115) 강성위, 앞의 논문, p.169.

<표 3> 서영수합이 차운한 중국 시

중국시인	차운하거나 화운한 시작품들
두보(杜甫)	「次杜春水戊辰」, 「和杜入宅」, 「和杜初月」, 「次杜午頭山亭子韻憶遊歸眞寺人」, 「和杜晴」, 「和杜天河」, 「次杜巖公宅詠竹」, 「待長兒之行用杜韻」, 「次杜小園」, 「次杜月圓」, 「次杜韻」, 「次杜秋興八首」, 「拈杜韻」, 「臘日次杜」, 「次杜野亭」, 「使自燕行還用杜韻」, 「次杜二首」, 「雨中次杜」, 「次杜二首」, 「小重陽次杜二首」, 「次杜三首」, 「長兒失期不來次杜韻寄示悵望之懷」, 「次杜二首」, 「次杜」, 「次杜四首申末」, 「次杜韻送庶弟有用適舍弟楊州任所」, 「立春次杜」 등 총 27首
왕유(王維) ¹¹⁶⁾	「次王維渭川田家擬作」, 「次王維城南別業擬作」, 「遣懷次右丞韻」, 「次右丞青溪韻」, 「次右丞望藍田」, 「次右丞韻」, 「次右丞韻」, 「擬次右丞田園樂七首」, 「?」 등 총 9首 ¹¹⁷⁾
이백(李白)	「次李白秋下荊門」, 「次李白」, 「次李白」, 「次李白自遣」, 「擬夜宴桃李園」 등 총 5首
육유(陸遊) ¹¹⁸⁾	「擬放翁白帝泊舟」, 「擬放翁雙柏」, 「次陸夕雨」, 「次陸夜意」 등 총 4首
도연명(陶淵明)	「次陶淵明韻」, 「次陶」, 「又次」 등 총 3首
가도(賈島) ¹¹⁹⁾	「次唐訪隱者不遇二首」, 「次唐訪隱不遇」 등 총 2首
맹호연(孟浩然)	「次孟浩然聽琴」, 「次孟浩然」 등 총 2首
소식(蘇軾)	「次東坡詠雪」 1首

116) 왕유(王維, 701-761년/ 699~761년) : 당나라 유명한 시인, 화가이고 字는 마힐(摩詰), 호는 마힐거사(摩詰居士)이며 세칭은 왕우승(王右丞)이다. 왕위는 불교의 신봉자라는 이유로 '詩佛'이라고 불리었다.

117) 서영수합이 왕유의 시를 차운한 시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다. 이것은 “이정화, 앞의 논문, p.47.”의 도표 중 왕유의 작품을 8수라고 했는데, “김려주, 앞의 논문, p.11.”의 도표에서 왕유의 작품을 9수 차운한 것으로 밝혔다.

118) 육유(陸遊, 1125-1210) : 남송의 詩人이자 詞人이다. 字는 무관(務觀)이고 호는 방옹(放翁)이다.

119) 가도(賈島, 779-843년) : 젊은 나이에 속세(俗世)를 떠나 승려가 되었는데 그에게는 「訪隱者不遇」

도표에서 보면 단순히 작가의 이름이나 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詩題인 것이 아니라 호, 또는 원시인의 성향을 통해 받은 계발을 통해서 지어진 제목도 있다.

이 시기의 서영수합에게 남편이 시작을 권한 것은 가장 좋은 핑계와 계기로 작용했다. 겉으로는 외부적인 영향과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리화를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두 외적인 간섭과 유교적 사상의 영향보다 그녀 자신의 자의식이 훨씬 더 결정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여성이 아무리 남성의 부속품이라 하여도 주관적인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사대부가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어느 정도의 한자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사상이 사회와 가정에 순응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여성으로서 자신이 마음속에 가두었던 욕망을 스스로 불러내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힘을 빌려내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서영수합이 만일 남편이 시를 지으라는 강요 아래서만 시를 지었다면 유교적인 규제로 필사를 하지 않은 자신의 의식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유교적인 영향만 받았다면 남편의 시우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서영수합은 비교적 모순적인 상태에서 詩作에 대한 욕망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포기할 수도 없었으므로 윤리와 詩作 사이에서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다 아우르고자 하였다. 즉 이 시기의 서영수합은 자신이 숨겼던 욕망과 유교사상을 병존시킴으로써 자신의 모순적인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영수합이 남편 홍인모의 말년 시우가 되었던 시간, 즉 夫唱婦隨의 정경은 얼마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812(순조12)년 남편 홍인모가 돌아간 이후 서영수합의 내심세계는 자신의 모순적인 의식을 허락할 수 없었다.

전 단계에서 서영수합의 모순된 자의식은 이미 주어진 생활환경 아래서 즉 유교사상에 감촉하면서 형성된 자의식과 변화된 환경조건 즉 출가 후 남편의 추동 아래서 자신의 숨겨놓은 문학에 대한 욕망이 각성되어 서로 충돌되면서 모순이 급격화되다가 남편 홍인모가 세상을 떠난 후 유가적인 자의식이 점차 우세를 보이면서 결국 서영수합은 다시 유교 윤리 규범에 맞는 사대부가 여성의 자의식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때문에 서영수합은 남편과 사이별을 겪은 후 시창작을 접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서영수합은 모순된 자의식으로부터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

라는 시작품이 있다.

면서 사대부가 여성의 생활이라는 원위치로 돌아가고 말았다.

2) 상경란 : 독립적 자아 추구

명말 청초의 여성작가로서 상경란은 우월한 물질조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祔·商가족의 개방된 풍기, 開明한 문인의 지지 등의 조건을 통해 여성시인으로서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의식이 각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시각과 사상, 관찰, 사고, 자아인식 심리상태로 인생경력을 쌓아왔으며, 나아가 봉건사회 속에서 다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한다.

명말 청초는 나라의 교체, 정권상의 혼란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늘 사회의 불안정,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 하지만 명말 청초는 고도의 발전으로 사회의 풍기가 전에 비해 진보적이고 개방적으로 바뀌었으며 여성에 관해서도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문화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시기는 전 시대의 개명한 문화풍속의 영향을 받아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차수도 많아졌다. 사회진보는 여성의 독립적인 자의식을 각성시켰기에 이로부터 여성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자신의 생존상황에 관한 의식과 작품창작에서의 자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를 살았던 상경란의 인생은 아주 기이한 색채를 띠고 있다. 출가 전의 상경란은 좋은 문학적 분위기 아래서 일정한 문학적 소양을 갖췄다. 또 16세에 기표가와 혼인하여 행복한 생활을 보냈고 남편의 지지로 자유로운 문학활동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기표가는 남경이 함락되고 소주, 항주가 청군의 공략을 받아 신하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하여 순국하였다. 상경란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혼인생활은 이쯤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의 문학활동은 나라의 멸망, 남편의 순국과 같은 중압감을 받으면서도 계속되었다. 또한 가족내외의 문학활동을 조직하여 대량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상경란의 본격적인 작품 창작은 대부분 이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시작의 성향도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난세일수록 문학하는 사람의 작품에 큰 자격과 각성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상경란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겪어가면서 애초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에 대한 작품을 보여주던 작가에서 새로운 여성작가로서의 각성을 가져왔다. 상경란의 애초의 작품은 대부분 꽃과 미인을 이미지로 삼아 여성작가로

서 여성 특유의 이미지 형상에 대하여 뚜렷한 묘사를 진행하였다. 반면 인생의 고초를 겪은 상경란은 「세상 떠난 남편을 애도함(悼亡)」이란 시작품에서 첫 전 변을 가져왔다. 이 작품은 남편 순국 전의 혼인생활에서는 볼 수 없던 비장함과 순절을 노래하고 있으며 여성작가로서 마음의 소리를 읊어냈다. 여성이지만 나라의 운명을 주시하고 자아가치를 실현하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한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단계에서 특유한 기쁨을 갖고 있지만, 상경란의 일생 중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던 시기는 바로 규중에서 시집가기를 기다리던 시기(待字閨中)였다.¹²⁰⁾ 상경란은 이부상서(吏部尙書)의 딸로서 자연적으로 물질적인 생활조건이 보장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규방생활을 지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작품은 소녀로서의 생기가 넘치는, 생활의 아름다움에 대한 작품이 대다수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詠石榴花」이다.

「詠石榴花」

석류꽃을 읊다

榴花如日照簾櫳,
小小枝頭日派紅.
佳人刺繡羅裙上,
添得幽香鬪晚風.

해 같은 석류꽃 들창에 비치니,
자그마한 가지 끝 한 줄기가 붉네.
가인이 비단치마 위에 수놓으니
그윽한 향기가 저녁 바람에 나부끼네.

이 작품에서 상경란은 소녀로서의 특유한 민첩성과 활발함, 천진난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창문에 비치는 석류꽃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통해 석류꽃의 아름다운 모습에 못 이겨 가인(미인)이 자신의 치마 위에 수놓았는데 치마 위에 수놓은 석류꽃은 향기까지 보태어 저녁 바람에 나부긴다고 하였다.

상경란은 명문대가의 제자는 아니지만 사대부가 여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호한 가정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생계유지란 그녀에게 전혀 무관한 일이 되었으며 심지어 자신과 혼인한 상대인 기표가도 명문사대부가 출신으로 문학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 商·祿 두 집안은 모두 명문이었기 때문에 개방된 풍기, 개명한 사상은 그녀의 고민을 덜어주는 동시에 그녀의 작품 창작에 유력한 지지자가 되었다.

120) 李貴連, 앞의 논문, p.27.

인생에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도 있다. 상경란의 인생 경력 중 그녀를 가장 슬프게 했던 것은 나라의 멸망, 남편의 순국, 나아가서 자신보다 더 일찍 세상을 뜬 몇 명의 아들과 딸이었다. 상경란의 인생은 여러모로 불행을 겪어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녀는 늘 문학활동에 힘썼다. 그러므로 상경란의 다수의 시작품도 孀居 시기에 창작되었다. 이 시기의 상경란은 딸과 며느리를 이끌고 시 창작을 통해 인생을 읊고, 감정의지를 묘사하였다. 가족남녀 간의 창화는 기씨 집안더러 일관된 일문풍아(一門風雅)가 계속되게 하였다. 상경란의 문학에 대한 자각적인 추구하고 인도 때문에 기씨가족 여성은 문학재질 방면에서 표창을 받았으며 문학상에서 모두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¹²¹⁾ 끊임없는 문학추구 과정에서 상경란의 여성 자의식과 여성작가로서의 자의식이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그녀의 인생도 문학으로 승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상경란은 출가 전에 갖고 있던 안정적인 규수생활과 창작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점차 독립적인 자아, 독립적인 문학창작으로 나아가 후기 작품 창작에 큰 영향을 주었다.

상경란의 인생에서는 무엇보다도 명나라의 멸망과 남편의 순국 때문에 나타난 심리상의 변화가 후기 작품 창작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애초에 상경란의 작품 창작 주류는 여성적 이미지, 여성의 개인적 私情이었는데 남편을 잃은 후의 그녀는 여성작가로서 자의식을 작품에서 부각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경란은 자신이 추구하는 문학에서 독립성과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작가로서의 독립적인 사고와 가문의 문학을 이끌면서 문학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명나라의 멸망과 남편의 순국 후에 나타난 상경란의 심리상태의 변화는 제일 먼저 앞에서 다뤘던 「세상을 떠난 남편을 애도함(悼亡詩)」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 밖에도 「苦雨」, 「中秋泛舟·其三」, 「九曲寓中作」, 「過河渚登隱樓哭夫子」, 「五十初度有感」에서도 이전의 작품과 확연히 다른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苦雨」중에 “천리 산하를 바라보는 가운데, 무단히 구름이 하늘을 가리네.”¹²²⁾라는 구절에서 열사의 아내로서 명나라의 멸망에 대해 끊임없는 슬픔과 탄식을 토로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천리 산하’, ‘하늘’인 명나라가 청나라인 ‘구름’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은 결국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 멸망된 것을 암시하고 있다.

121) 董雁, 「女性的抒書與企望-商景蘭的文化活動與女性意識」, 『西北農林科技大學學報』第十卷 六期, 陝西: 西北農林科技大學, 2010, pp.112~113.

122) “千里河山一望中, 無端煙靄幕長空.” 祁彪佳, 앞의 책, p.264.”

이 시기의 상경란은 끊임없는 불행을 당하면서 자신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에 대한 창작에서 벗어나 나라의 운명에 대한 관심, 강렬한 애국적인 감정과 憂國의 정서, 남편의 순국 등에 본격적으로 노래하였다. 난세는 여성작가에게 의지할 곳이 없는 불안한 인생을 주는 동시에 그녀들로 하여금 주변의 환경 영향으로 작품의 전변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자의식 각성과 자기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를 얻게 만들었다.

IV. 徐令壽閣과 商景蘭 시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과 중국은 예로부터 같은 漢字문화권에 위치해 있어 문학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은 상층 지배계급인 사대부남성들에게만 해당되었을 뿐 여성들은 그러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특히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했던 詩作 면에서 보면 漢詩는 원래 한문문학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대부남성들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시작의 주목적은 과거시험을 위한 일종의 교양 쌓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봉건사회에서 자유롭게 문학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 나름의 문학체계를 형성하였다. 이 중 사대부가 여성들의 문학체계 형성은 다른 계층의 여성에 비해 더딘 상태에서 발전되어 왔지만 조선후기와 명말 청초에 이르러 사대부가 여성들은 여성시인의 흥성시기를 맞으면서 인원과 작품 수에서 이전 시기에 비해 상당한 우세를 선보였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의 여성문학 흥성 시기인 조선후기와 명말 청초 사대부가 여성시인의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성문학의 흥성 시기에 관해서 필자는 이미 II장 생애 부분에서 기존 저서의 견해에 따라 인원수 통계를 만들어 나름의 논리를 펼쳤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연구사에선 조연숙의 견해, 중국의 연구사에서는 胡文楷의 견해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필자 나름으로 조선후기와 명말 청초를 흥성기로 설정해 보았고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두 여성 시인인 조선후기 서영수합과 명말 청초의 상경란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세사회에서 문화 선진국으로 여겨졌던 중국의 문학적 경향은 연행을 간 역관을 통하여 많은 서적이 유입됨으로써 조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적 경향은 생각만큼 쉽게, 또 빠르게 조선에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함은 물론이고 조선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문학적 경향은 배제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사대부 남성들의 창작 경향에서의 상황도 이러한데 사대부가 여성들의 창작 현장은 이보다 더 더디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명말 청초가 여성시인의 흥성 시기였으나 한국에서는 조선후기인 서영수합이 살았던 당대가 여성시인의 흥성 시기로 다소 차이가 나

타남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선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상경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1960년대에 시집이 발행된 것을 보면 비교적 잘 알려진 여성시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후 정치체제의 불안정으로 초판 발행 후 그녀에 대한 연구가 공백기에 처하였다. 심지어 부분적인 書稿도 훼손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상경란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경란이 서영수합의 비교 상대로서, 또 앞선 시기의 시인으로서 어느 정도로 훌륭한 시인인지에 대해 한층 더 깊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상경란의 본격적인 시작 활동은 출가 후로 판정되었지만 출가 이전부터 이미 시작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상경란의 본가는 원래 명문사대부가로서 여성이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출가 후 남편의 지지로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여성시사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둘째, 여타 사대부가 여성시인과 달리 상경란의 작품에서는 이별의 감정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계층의 여성시인과 달리 이별의 대상은 남편과 친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남편의 순국 후에는 사별에 대한 정을 나타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세상 떠난 남편을 애도함(悼亡詩)」이다.

셋째, 상경란은 유교이념이 주류인 사회에서도 자신의 시작을 견지하였다. 심지어 남편이 순국한 이후에도 시작을 계속 이어갔으며, 이를 통해 규방여인으로 부터 독립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진정한 시인으로 전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본 결과 상경란은 명말 청초 사대부가 여성시인임을 알 수 있다.

서영수합의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상경란은 이미 중국에선 훌륭하고 특색 있는 시인으로 기존연구에서도 많이 검증된 상황이지만, 서영수합은 아직까지 여성시인으로서의 가치 부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서영수합을 전형적인 사대부가 여성시인으로 보고, 그녀의 시의 내용에서 이렇다 할 연구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본고 III장에서 다룬 3가지 시각으로 이 시인을 살펴보았을 때 이 시인은 중국의 상경란과 견주어 결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시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서영수합의 시작 활동은 남편의 권유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어렸을 때

부터 품었던 욕망이 남편의 도움으로 비로소 분출된 것이었다. 또 남편 이외의 가족들과 수창한 것이 시에서는 자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시우가 되어 시를 지은 것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시작에서 서영수합 자신이 시작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면 절대 사대부가 여성시인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을 그녀에게서는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몇몇 시작품에서 시인이 여성인 것을 모르고 읽을 경우에 전형적 사대부가 지은 것으로 착각할 만한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 여타 사대부가 여성시인과 달리 서영수합의 작품에서는 이별의 감정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것은 다른 계층의 여성시인과 달리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자식의 사행 길을 배움하면서 처음으로 사대부가 여성시인이 지은 별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별장 성격의 시작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서영수합은 유교사상으로 철저한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강한 인물로 판정하기는 힘들다는 편견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그녀는 어릴 때부터 시작에 대한 욕망을 꿈꿔왔고 출가 후 남편의 권유로 그 욕망을 실현시켰다. 서영수합의 생애 전반과 시작품의 전반을 꿰뚫어 보면 그녀는 늘 유교이념과 시작에 대한 욕망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존재로서, 시작하는 동안에 늘 윤리와 조화를 추구하려는 의식을 보여주었다.

서영수합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절필’이라는 방식으로 시작의 끝을 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영수합의 짧은 시작의 기간 동안 다작을 한 것으로 보아 시작을 하기 이전에 이미 준비된 시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딸인 홍원주의 시작 활동은 어머니의 시적 열망이 딸에게 전수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해 본 결과 서영수합은 조선후기 훌륭한 사대부가 여성시인임에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V. 결 론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여성문학 흥성 시기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조선 후기 서영수합과 명말 청초 상경란의 생애, 작품 개관, 시작활동과 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양국 흥성 시기의 문학사에서 두 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고려한 것이었다.

필자가 국경을 벗어난 두 시인을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하여 연구한 이유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시작품에서 같은 특징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두 시인의 공통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런 다음 2차적으로는 그 공통점 내부에 존재하는 개별적 차이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제II장에서는 서영수합과 상경란의 생애와 작품을 개관하였다. 두 시인은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공통적으로 사대부가 여성이면서 시를 지었고 시집을 남겼다. 서영수합은 71년을 살았지만 시작한 시간은 남편의 만년부터 죽음까지의 불과 몇 년이었다. 이처럼 짧은 창작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15편 191수의 다작을 남겼다. 심지어 그녀의 시작과 문학에 대한 사랑은 자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중 맏딸인 홍원주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뛰어난 여류시인으로 성장하였다. 상경란도 명말 청초 당시 약 72년의 천수를 누렸다. 서영수합과 달리 상경란의 인생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詩作을 이어온 삶을 살았다. 그녀는 67수의 詩, 94수의 詞, 補遺詩 3수와 遺文1편 등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다. 상경란은 祔氏 가족의 여성을 이끌며 시작을 하였다. 世人들의 평가에 의하면 상경란은 남편보다 시를 더 잘 지었다고 한다.

제III장에서는 본연구의 중심으로서 서영수합과 상경란의 시작 활동과 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영수합의 시작 활동을 출가 전, 출가 후, 남편 사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출가 전의 서영수합은 글을 좋아하고 시 읊기를 즐겼지만 할머니를 비롯한 徐氏 가족의 금기에 따라 시를 짓지는 않았다. 심지어 출가 후 10년이 넘도록 시가에서는 그녀가 글을 아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서영수합은 남편의 권유로 말년의 시우가 되었지만 본가의 훈계를 머릿속에 새겨 두어 자신이 읊은 시

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시작하는 동안에 남편 외의 가족들과도 수창한 정경이 자주 시작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자신의 시재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는 현상을 시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편의 죽음과 동시에 그녀는 ‘절필’하였다.

서영수합에 비하여 상경란의 시작 활동은 훨씬 자유로웠다. 상경란의 시작 활동 상황에 근거하여 대체적으로 출가 전, 출가 후, 남편의 순국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출가 전의 상경란은 문학적 분위기가 좋은 가문의 여식으로서 높은 문학적 소양을 쌓아왔다. 심지어 그녀를 비롯한 商氏 집안의 여성은 문학방면에서는 아주 자유로웠다. 출가 후의 상경란은 남편의 지지를 얻어 계속 시작을 이어갔고 외부 여성문인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했다. 나아가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여성시사를 건립하여 집단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때 상경란의 시적 성향은 출가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남편 순국으로 그녀는 시작에서 轉形을 보여주면서 규방시인에서 벗어났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세상 떠난 남편을 애도함(悼亡詩)」이 있다.

다음으로 서영수합과 상경란의 시에 나타난 이별에 대한 감정을 살펴보았다. 두 시인은 같은 신분계층의 여성시인이 다루지 않았던 이별의 감정을 다루었다.

서영수합은 이별에 대한 세 가지 감정을 다루었는데 대상은 모두 자식이다. 그중 사행으로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면서 별장 성격의 작품을 지었는데 사대부들이 지은 별장의 정서와 달리 어머니로서 자식과의 이별의 감정을 담아 노래한 것이다.

상경란의 이별에는 생이별과 사이별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생이별에서는 나라의 要事로 타지에 떠나게 된 남편과의 생이별과 떠나는 친구를 아쉬워하는 생이별을 다루었다. 사이별의 대상은 남편이다. 남편의 순국으로 유발된 슬픔과 외침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영수합과 상경란이 보여준 여성시인으로서의 자의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두 시인은 사대부가 여성이지만 시인으로서 나름의 자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서영수합은 서영수합의 시작 활동의 시작부터 모순적이었다. 한편으로는 본가의 훈계를 잊지 못하고 유교이념을 지키려고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시작에 대한 욕망을 꿈꿔왔고 출가 후 남편의 권유로 그 욕망을 분출하고

실현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서영수첩은 시작하는 동안 윤리와 욕망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상경란은 이와 반대로 시작을 통해 늘 독립적인 자아를 추구하였다. 상경란의 본가가 간직한 시작에 대한 자유로움은 그녀의 독립적인 시작 성향을 양성하였다. 나아가 출가 후에도 문학에 대한 자각적인 추구로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 여성시사를 건립하였다. 남편 순국 후 그녀의 시작 활동에 위기가 닥쳐왔으나 난세에 의지할 곳이 없는 불안함을 이겨내며 독립적인 자의식이 각성되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작을 이어갔다.

이상 서영수첩과 상경란의 시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두 시인은 모두 조선후기와 명말 청초의 훌륭한 사대부가 시인이므로 양국 문학사에서 각자의 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사대부가 여성시인으로 위치지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논 문

- 강성위, 「和韻詩의 類型과 特性考」, 『중국문학』 30집, 한국중국어학회, 1998, pp.169~187.
- 김명희, 「서영수합과 홍유한당」, 『논문집』 45, 강남대학교, 2005, pp.1~19.
- 김려주, 「朝鮮後期 女性文學研究-令壽閣 徐氏의 漢詩를 중심으로-」, 『한문교육 연구』 제6권 11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pp.185~229.
- 羅芸, 「試論明清時代環境對商景蘭文學成就的影向」, 『科教文匯』, 安徽: 科教文匯雜誌社, 2012, pp.69~70.
- 林稚暉, 「明清之際江南閨秀詩人社會形象研究」, 廣州: 華南理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pp.1~63.
- 董雁, 「女性的抒書與企望-商景蘭的文化活動與女性意識」, 『西北農林科技大學學報』第十卷 六期, 陝西: 西北農林科技大學, 2010, pp.110~115.
- 박무영, 「여성 한시의 시세계」, 『한국 고전 여성문학의 세계(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8, pp.45~65.
- 박영민, 「시화의 기생한시 담론과 심미의식」, 『한문교육연구』 2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pp.329~360.
- 付建舟, 「商景蘭詩歌의 女性特質與女性自覺」, 『湖北大學成人教育學報』第三十卷 六期, 湖北: 湖北大學成人教育學院, 2012, pp.64~71.
- 常娟, 「明清之際의 才女群及其家族化」, 重慶: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pp.1~62.
- 石旻, 「亂離中的: 明末才女商景蘭及其婚姻與家庭」, 『中國典籍與文化』第三期, 北京: 教育部全國高等院校古籍整理研究工作委員會, 2001, pp.118~124.
- 성낙희, 「韓國 古代詩歌의 女性意識」, 『아시아여성연구』 39,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0, pp.7~24.
- _____, 「朝鮮朝 女流 漢詩의 世界: 그 身分 계층에 따른 시적 특성」, 『아시아여성연구』 30, 아시아여성연구소, 1991, pp.191~217.

- 孫康宜, 「明清文人的經典論和女性觀」, 『江西社會科學』, 江西: 江西省社會科學院, 2004. pp.206~211.
- 안주영, 「18·19세기 사대부 여성 한시 연구-호연재 김씨, 영수합 서씨, 삼의당 김씨의 작품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1~80.
- 안대회, 「조선 후기 燕行을 보는 세 가지 시선- 燕行使를 보내는 送序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9호, 한국실학학회, 2010, pp.87~121.
- 楊艷琪, 「明代祁彪佳與文學女性」, 『北京印刷學院學報』 第十六卷 三期, 北京: 北京印刷學院, 2008, pp.55~58.
- 吳琳, 「明清易代與山陰名媛商景蘭的詩境開拓」, 『紹興文理學院學報』 第三十三卷 三期, 浙江: 紹興文理學院, 2013, pp.11~15.
- 汪禮霞, 「祁彪佳及其日記研究」, 合肥: 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pp.1~80.
- 李貴連, 「明末清初山陰祁氏家族女性文學研究」, 南京: 南京師範大文學 碩士學位論文, 2009, pp.1~88.
- 李貴連, 「老大嫁作商人婦脫却紅妝入空門——女尼谷虛生平考述及其與祁氏家族女性交遊探析」, 『社會科學論壇』 第十期, 河北: 河北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09, pp.171~175.
- 李貴連, 「商景蘭卒年考辨」, 『長春大學學報』 第十九卷 一期, 長春: 長春大學, 2009, pp.54~56.
- 李貴連, 「黃媛介生平經歷及其與山陰祁氏家族女性交遊考述」, 『長春大學學報』 第二十一卷 五期, 長春: 長春大學, 2011, pp.71~73.
- 이수곤, 「조선 후기 시가에 나타난 노년 여성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pp.57~84.
- 이연희, 「서영수합과 홍유한당의 한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1~89.
- 이정화, 「서영수합의 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p.1~90.
- _____, 「서영수합의 시의 풍격 연구-次韻詩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pp.45~64.
- 임노직, 「화산 권주의 연행별장(燕行別章)」, 『국문학연구』 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2, pp.249~260.
- 林稚暉, 「明清之際江南閨秀詩人社會形象研究」, 廣東: 華南理工大學 碩士學位

- 論文, 2013, pp.1~64.
- 장인애, 「허난설현과 서영수합의 한시에 나타난 여성상」, 『한문학논집』 34, 근역한문학회, 2012, pp.157~216.
- 錢亞新, 「淡淡<<祁彪佳集>>的版本」, 『江蘇圖書館工作』二期, 江蘇: 江蘇省圖書館學會, 1980.
- 정우택, 「‘이별’의 양상과 심미적 양식화」, 『국제어문학』 학술대회 자료집, 2006, pp.25~34.
- 周明初, 「‘悼亡’并非悼妻的專稱—讀明代六位女詩人的‘悼亡’詩」, 『中國文化研究』冬之卷, 北京: 北京言語大學, 2008, pp.38~44.
- 최정운, 「令壽閣詩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1~63.

2. 단행본

- 김명희·박현숙, 『조선시대 여성 한문학』, 이회문화사, 2005, pp.1~30.
- 康正果, 『風騷與艷情—中國古典詩詞的女性研究』, 西安: 西安交通大學, 1998, pp.1~349.
- 강혜선, 『여성한시선집』, 문학동네, 2012, pp.1~270.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2010. pp.1~386.
- 祁彪佳, 『祁彪佳集』, 北京: 中華書局, 1960, pp.1~366.
- 김지용, 『한국의 女流漢詩』, 여강출판사, 1991, pp.1~534.
- 陶慕寧, 『青樓文化與中國文化』, 北京: 東方出版社, 1993, pp.1~221.
-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pp.1~349.
- 박지원, 리상호 옮김, 『열하일기』(상), 보리출판, 2004, pp.428~488.
- 손직수, 『조선시대 여성교육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2, pp.1~225.
- 유호준·이태호,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 학교재, 2000, pp.1~187.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4판)1-3권, 지식산업사, 2005.
- 조연숙, 『한국고전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pp.1~386.
- 허미자, 『朝鮮朝女流詩文全集』 권2, 태학사, 1988, pp.313~407.

胡文楷, 『歷代婦女著作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pp.1~1228.

3. 기타

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itkc/Index.jsp>

표전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바이두, <http://www.baidu.com/>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